

공장 문닫기도 전에 은행들 짐 싣다

흑독한 ‘군산의夏’ ❶ 비 올 때 우산 빼앗나

잡초는 ‘쇠락’의 기운을 먹고 자랐다.
철제 외벽과 슬레이트 지붕만이 우뚝 서 있는 공장에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보도블록 틈새에도, ‘임대’ 팜플릿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오피스텔 앞에도, 한 동안 공터로 남을 학교 부지에도 잡초는 쇠락의 기운을 먹고 자라고 있다.
13%.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이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차지했던 면적이다. 속절없이 떠난 두 거대 기업의 빈자리는 여전히 군산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1년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2년 사이, 이투데이가 군산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귀신같이 사라지던데요.”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4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5·여) 씨는 최근 주거래은행을 바꿨다. 원래 찾던 은행 지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탓이다. 오식도동은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마을이다. 타지에서 온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위주로 형성됐다.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지난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 지금은 다들 흩어졌다. 김 씨는 “자영업자를 하던 은행을 찾을 일이 많은데 차 타고 30분 정도 떨어진 곳까지 다닐 이유가

지자체 금고 운영권 맡은 은행
지역경제 흔들리자 지점 폐쇄
잇속 챙기기에 고객은 뒷전
산단 지점 6곳 중 2곳만 남아

없이 거래은행을 바꾸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4면
두 거대기업의 잇따른 공장 폐쇄 결정에 가장 민첩하게 반응한 곳은 ‘은행’이었다.



공식적인 공장 폐쇄 결정에 앞서 지점 철수를 단행한 은행도 나타났다. 노동자와 협력사들은 회사 측의 공식 발표 당일해야 접했던 청천벽력 같은 ‘공장 폐쇄’ 결정이었다. 일찌감치 소식을 감지한 은행들은 고객보다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였다.
이투데이가 지난달 18일 군산을 찾았을

때 산업단지에 남은 은행 지점은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뿐이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만 남은 셈이다. 2016년 말 이후 은행 지점 6곳 중 4곳이 단지를 떠났다.
가장 먼저 철수한 곳은 우리은행이다. 2017년 1월 군산공단지점을 없애면서 군산지점과 통폐합했다. 군산조선소 폐쇄 6개월 전이었다. 두 달 뒤인 3월에는 전북은행이 새만금공단지점을 소룡동지점과 통폐합했고, 그해 12월 NH농협은행도 새만금공단지점을 나운지점과 합치며 받을 뻔했다. 가장 최근에 단지를 벗어난 곳은 KB국민은행이다. 올 2월 군산국가산업단지 지점의 문을 닫았다. 그 자리에는 카페가 들어섰다.
군산 소재 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유지해 봐야 조금만 지나면 경매에 들어가고 손실이 커지다 보니 은행 산단 지점들이 일찌감치 받을 뻔했다”며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산단의 협력사들 여신을 해주려는 시중은행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 안에서는 그나마 전기차나 열병합발전소, 폐기물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같이 돈이 되고 안정적인 곳에만 대출

을 열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철수한 은행들이 모두 전라북도나 군산시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2017년부터 군산시의 1·2급고를 맡고 있다. 농협은행은 전라북도의 1급고도 맡고 있다. 전북은행은 전북의 2급고다. 매년 약 8조 원 규모의 예산을 굴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에 비해 지역에 대한 책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시금고를 맡기 직전 산업단지에 지점을 냈다가 문제가 터지자 2년 만에 바로 철수해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은행이 국가산업단지 지점을 연 것은 2016년 10월이다. 약 두 달 뒤 국민은행은 군산 시금고에 선정됐다. 43년간 금고를 맡아온 전북은행을 밀어내고 얻은 성과였다.
또 다른 군산 소재 은행 지점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2년 만에 철수한 것에서 애초에 시금고 선정만을 목적으로 들어간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군산 =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김보름 기자 fullmoon@



성윤모(맨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 상황 점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日 경제보복에...정부 “WTO 제소 등 강력 대응”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주한 일본대사 불러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항의 조치의 일환으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공식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1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 스마트폰과 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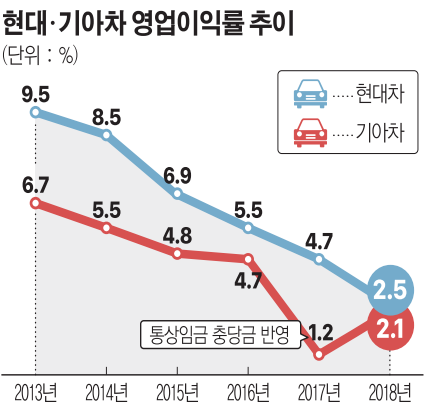
훼손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수출 규제 적용 대상이 된 3개 품목은 TV와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일본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0%, 에칭가스는 70%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 3개 품목 모두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기업이 여러 제품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4일부터는 계약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과 심사에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 사실상 수출을 차단하게 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자재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리지스트, 에칭가스는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입선을 바꾸거나 국산화하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마른 수건’ 짜내는 현대·기아차 협의체 만들어 원가절감 나선다

현대차 영업이익률 작년 2.5%로 ‘뚝’
기아차 2분기 실적 중심 실효성 검증
7개 분야 개선책 마련 확대할 계획

현대기아차가 마른 수건도 짜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기아차에서 시작한 7개 분야 원가절감추진협의체가 현대차까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2분기 들어 기아차가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추진했던 7개 분야 원가절감추진협의체가 2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첫 번째 실효성 검증에 나섰다. 분야별 성과에 따라 개선 및 보완책을 만들고 검증된 방법을 통해 현대차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전동화 전략은 물론 부품 공용화(표준화)부터 생산과 재고까지 분야별로 원가절감 전략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기존의 원가절감 전략을 보다 세분화하고 이를 컨트롤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절감추진협의체는 올해 초 기아차에서 추진됐고 2분기부터 본격화했다. 원가절감추진협의체는 △전동화 △부품 표준화 △원가 최적화 △생산성 향상 △품질 비용 △판매비용 △재고관리 등 7개 분야에서 수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뽑고 원가 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의 경우 2011년 영업이익률이 무려 10.4%에 달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영업이익 두 자릿수를 기록한 브랜드는 독일 BMW와 포르쉐 등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에 국한돼 있다. 당시 일본차가 대규모 리콜사태와 동일본 대지진 탓에 부침을 겪는 사이 현대기아차가 ‘제값 받기’ 전략을 내세우면서 세운 기록이다.
반면 일본차의 거센 반격과 세단 중심으로 짜놓은 현대기아차 제품전략이 ‘글로벌 SUV 광풍’ 탓에 빠르게 한계에 다다르면서 영업이익률이 위축됐다. 2013년 9.5%로 내려앉은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5%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6.7% 수준이었던 기아차 영업이익도 지난해 2.1%까지 내려앉았다. 1000원여치를 팔면 고작 20여 원이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올해를 수익성 회복 원년으로 삼았다. 현대차는 2월 기업설명회를 통해 2022년까지 자동차 부문 영업이익률 7%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기아차가 앞서 추진한 원가절감추진협의체를 바탕으로 현대차 역시 조만간 같은 전략을 담은 TFT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도 추진해온 원가절감 전략을 하나의 협의체로 통합해 컨트롤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효성그룹 회장〉

‘품질 경영’ 힘 싣는 조현준… “기술에 기술 더할 것”

효성, 통합 생산기술센터 출범

조현준(사진) 효성그룹 회장이 그룹 통합 생산기술센터를 출범, 기술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기술에 기술을 더해 초고도 기술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이날 섬유, 첨단소재, 화학 부문의 핵심 고정 및 설비 기술을 총괄하는 조직 ‘생산기술센터’를 출범했다.

생산기술센터는 효성기술원,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소속 핵심 기술 인력들로 구성된 4개 팀, 26명 규모로 구성됐다. 연구조직인 효성기술원과 생산조직인 공장을 연계시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기술요소에 대한 전문인력을 육성하려는 목적이다. 이들은 협업을 통해 신규 공정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기존

4개 팀·핵심 인력 26명 구성

연구-생산 조직 연계 경쟁력 강화

협업 통해 신규공정 자체 설계

추가 증설 대비 전문가 육성·확보

“세계 1등 안주하지 않겠다”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효성은 향후 공정 및 주요 설비에 대한 기본 설계 전문 인력을 확보·육성하는 등 인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효성 관계자는 “기술원의 연구결과를 공장에 바로 적용하는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며, 향후 추가 증설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특히 효성이 국내외 섬유 관련 특허 548건, 첨단소재 관련 특허 708건, 화학 관련 특허 1037건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독자적인 기술 간의 시너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그룹 통합 생산기술센터는 평소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오던 조 회장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됐다. 조 회장은 취임 때부터 “효성이 자체 개발한 원천 소재는 혁신제품의 근간이며 경쟁기업보다 앞설 수 있는 회사 경쟁력 창출의 핵심”이라며 “품질과 제품의 경쟁력 제고에는 반드시 기술력이 바탕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조 회장은 이번 생산기술센터의 목적은 ‘기술 융합’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이를 통해 효성이 보유한 9개의 세계 일류상품, 스판덱스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제품 등 기술 DNA로 쌓아온 기업 명성을 이어가겠다

는 방침이다. 조 회장은 “세계 1등 제품이 곧 세계 1등 기술이라고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에 기술을 더해 ‘기술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효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회사들과 다양한 사업 협력을 추진,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최근 조 회장은 글로벌 종합 석유화학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와 탄소섬유 공장 설립 검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양 사는 사우디아라비아나 국내 등에 탄소섬유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효성이 개발한 첨단신소재인 폴리케톤과 PPDH(탈수소 폴리프로필렌) 등 화학 분야,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ESS), 송·배전 그리드 등 전력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변호선 기자 hsbun@

이정희 사장의 R&D ‘독심’ … 유한양행, 1년새 3.5兆 기술수출 ‘잭팟’

“유한양행은 연구·개발(R&D) 중심의 세계적인 혁신 신약 개발회사로 변모해 가고 있다. 글로벌 100년 기업을 향한 여정을 우리의 뜨거운 도전으로 시작해야 한다.”(6월 20일 유한양행 창립 93주년 기념사) ‘글로벌 유한’을 위한 이정희(사진) 유한양행 사장의 리더십이 또 한번 빛을 발했다. 1조 원 규모의 기술수출 잭팟을 터뜨리며 유한양행의 R&D 저력을 입증했다. 불과 1년 사이 4번째 기술수출 소식이다.

유한양행은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및 관련 간질환을 치료하는 혁신신약 ‘YH25724’을 독일 글로벌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했다고 1일 밝혔다. 양 사는 GLP-1과 FGF21의 활성을 갖는 최초의 이중작용제 개발을 목표로 연구 협력할 계획이다.

비알콜성 지방간염 신약 개발

베링거인겔하임과 1조 계약

해외 ‘수입약 도매상’ 오명 벗어



이번 계약은 총 8억7000만 달러(약 1조500억 원) 규모로, 이 중 4000만 달러는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이다. 유한양행은 계약금 중 3000만 달러를 우선 수령하고, 1000만 달러는 비임상 독성실험을 마친 후 받는다. 또한, 개발과 허가, 매출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8300만 달러를 받고, 순매출액에 따라 경상기술료(로열티)를 수령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수출은 임상 1상에 진입하기 전인 동물실험(전임상) 단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유한양행은 베링거인겔하임과 2010년부터 심혈관계 질환 및 대사성 질환 제품에 대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 같은 유대관계가 전임상 단계 기술수출이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상당 부분을 해외 도입 제품이 차지하고 있

다는 점에서 한때 ‘수입약 도매상’이란 비아냥까지 들던 유한양행이 자칫 약점일 수 있는 특성을 기회로 바꾼 셈이다. 연초 NASH 치료 신약을 물질 발굴 단계에서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에 대규모 기술수출했던 것도 길리어드와의 공고한 유대관계가 기반으로 작용했다.

유한양행을 R&D 중심 제약사로 우뚝 세우겠다는 이 사장의 노력은 최근 1년 사이 총 4건,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기술수출로 열매를 맺었다. 지난해 7월 미국 스판인바이오파마와 퇴행성디스크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해 240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에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을 글로벌 제약사 안센바이오테크에 1조4000억 원이란 기록적 규모로 기술수출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길리어

드와 8800억 원 규모 계약을 맺으며 잇따른 낭보를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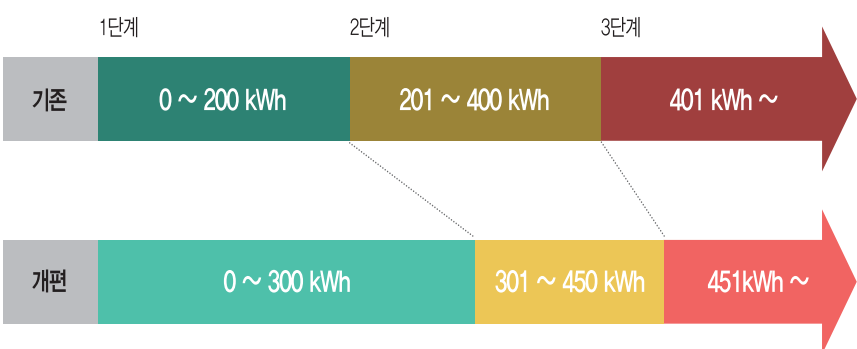
NASH는 흔히 간 내 지방의 축적에 의해 시작되며, 염증으로 발전해 최종적으로는 다수의 환자에게 간섬유증과 간경변을 초래한다. 비만 환자와 당뇨병 환자에게 발병할 확률이 높으며, 현재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아 의학적 수요가 매우 높은 분야이다. 유한양행이 자체 개발한 YH25724는 제넥신의 약효 지속 기반기술(HyFc)이 접목된 융합단백질이다. 전임상 연구를 통해 내장에서 생성된 호르몬인 GLP-1과 FGF21이 결합하면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중작용제는 지방간염 해소 및 직접적 항섬유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간세포 손상과 간 염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유혜은 기자 euna@

국민의 쾌적한 여름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 (7, 8월) 기본공급약관 개정 (2019. 7. 1 시행)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표〉

◆ 7~8월

기 본 요 금 (원/호)		전 력 량 요 금 (원/kWh)	
300kWh 이하 사용	910	처음 300kWh 까지	93.3
301 ~ 450kWh 사용	1,600	다음 150kWh 까지	187.9
450kWh 초과 사용	7,300	450kWh 초과	280.6

◆ 1~6월, 9~12월

기 본 요 금 (원/호)		전 력 량 요 금 (원/kWh)	
200kWh 이하 사용	910	처음 200kWh 까지	93.3
201 ~ 400kWh 사용	1,600	다음 200kWh 까지	187.9
400kWh 초과 사용	7,300	400kWh 초과	280.6

〈주택용 고압 전기요금표〉

◆ 7~8월

기 본 요 금 (원/호)		전 력 량 요 금 (원/kWh)	
300kWh 이하 사용	730	처음 300kWh 까지	78.3
301 ~ 450kWh 사용	1,260	다음 150kWh 까지	147.3
450kWh 초과 사용	6,060	450kWh 초과	215.6

◆ 1~6월, 9~12월

기 본 요 금 (원/호)		전 력 량 요 금 (원/kWh)	
200kWh 이하 사용	730	처음 200kWh 까지	78.3
201 ~ 400kWh 사용	1,260	다음 200kWh 까지	147.3
400kWh 초과 사용	6,060	400kWh 초과	215.6

韓업체 ‘시간과의 싸움’… 갈등 장기화땀 수출 치명타

반도체·디스플레이 비상

“韓 소재 수출 막히면 日도 손해
양국 외교타협 볼 때까지 버텨야”
속타는 대기업들 ‘脫일본’ 움직임

일본 정부가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른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레지스트·에칭 가스)은 사실상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등에서 필수 소재이며, 대일 의존도가 절대적인 탓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단 업계 관계자들은 사태가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1위인 한국 기업들에 소재를 수출하지 않는다면 일본 기업도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일 정부가 외교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때까지 관련 기업들은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간 셈이다.

1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1~2개월 정도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일본 정부의 추가 규제가 있다면 업계 파장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더 강력한 수출 규제를 할 경우, 한국산 반도체를 공급받는 일본기업은 물론이고 한국 반도체 제조사에 소재를 공급하는 일본 업체도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도 규제적용 폭과 기간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



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수출을 못 하게 될 경우, 자국 정부에 소송을 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용 에칭가스를 100% 한국에 공급하는 일본 스텔라의 경우, 올 1분기 기준 전체 매출액 가운데 약 60%가 반도체 관련 제품이다. 한국으로의 수출 제한이 현실화된다면, 스텔라 매출의 60%가 공중분해되는 셈이다.

이미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공급 대체 국가를 확보하려는 등 ‘탈(脫) 일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국내 소재 부품 기업에선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소재 업체 관계자는 “에칭가스를 만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공급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에 따라 반사이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레지스트(감광액)를 생산하는 소재 업체 관계자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제조사들은 일본 제품 대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제조사들이 일본 제품을 많이 쓰고 있지만, 국내 제품도 기술력에서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의 매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 10% 정도다.

엄주천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 국장은 “반도체 산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며 “이번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는 지금도 불안정한 반도체 가격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뿐 아니라 일본의 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갑산 체제에 돌입하면 최근 업황 부진

의 요인인 과잉공급이 해소돼 자연스럽게 ‘바닥 탈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TB투자증권 김양재 연구원은 이날 투자보고서에서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공급과잉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이번 이슈를 계기로 과잉 재고를 소진하는 한편 규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생산 차질을 발미로 향후 일본 업체에 대한 가격 협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계 단체들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 정부에 조속한 갈등 봉합을 촉구했다.

황동언대한상의글로벌경협전략팀장은 “우리 정부는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합리적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지속해온 우호적 경제 관계를 회복하고 양국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영록 기자 syr@
권태성 기자 tskwon@

“이참에 국산화·수입 다변화 추진”

성윤모 장관 “우리 부품 경쟁력 제고 계기 삼겠다”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면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 회의에서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일찍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성 장관은 또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WTO 협정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수출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난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을 주장했지만 곧장 이에 배치되는 조치를 내놓았다.

산업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자재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대응이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일본 산케이신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보도하기 전까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미리 통보받거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일 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와 접촉을 시도 중이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한 고위급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21일까지

지금바로 가까운 증권회사에서

종이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꾸세요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

증권관리는 더 편리해지고

증권거래는 더 안전해지며

자본시장은 더 투명해집니다

8월 21일 까지

당신의 종이증권을 맡겨주세요

자본시장이 0-만큼 좋아집니다

전자증권제도

· 8월 21일까지 종이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마감 시한은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자증권 전환 대상 발행회사는 종이증권 보유주주에게 2019년 9월 16일부터 종이증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전자증권제도

자본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KSD 한국예탁결제원

멈춰선 공장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문(북문) 앞. 2017년 폐쇄된 이후 조선소 정문을 철문으로 막아두고 있다.

사라진 은행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2월 문을 닫은 국민은행 국가산업단지점에는 카페가 들어서 있다.

“형동생 하던 협력사 대표 야반도주”… 은행도 속탄다

“2015~2016년 한창 공장이 활발히 가동 될 때는 모든 은행 직원들이 협력사에 직접 찾아가 ‘거래 좀 더달라’며 판촉 경쟁까지 벌였었죠. 하지만 지금 풍경은 정반대예요.”

군산 산업단지에 소재한 은행 지점 관계자가 말한 과거와 현재의 단면이다. 2017년과 2018년, 1년 새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문을 닫은 전후로 산단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이 관계자는 “불과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형, 동생’ 하면서 농담을 주고받던 협력사 대표가 다음 날 갑자기 연락 두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협력사들처럼 은행들도 하나둘 산단을 떴다. 지금 산단에서는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만이 협력사들 근처에 남아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산업공단에 지점을 둔 한 은행이 상각 처리한 현대중공업과 한국GM 협력사에 대한 채권 규모는 1800억 원 수준이다. 기존 채권이 3000억 원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3분의 2 수준이 부실화한 것이다. 상각처리란 한마디로 부도 등으로 빚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없는 빚’으로 치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남은 1200억 원 규모의 여신은 GM 협력사 15곳, 현대중공업 협력사 20곳 등에 나가 있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남은 신한, 익산·전주 등으로 영업망 확대 기은, 2~3%대 최저금리 대출 ‘체인지업’ 통해 협력사 부담 완화 일부 “새만금 개발·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경제 부활” 기대감도

또 다른 은행의 경우 전체 여신의 1%인 40억 원가량이 부실채권으로 묶여있다. 은행은 자산 건전성이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에 해당하는 ‘고정 이하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한다. 본점에서는 상각처리 및 부실처리 된 여신을 담보물 경매, 보증서 대위변제, 추심 등을 통해 회수 절차에 돌입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 정도 상황에서라면 수익성과 돈의 논리로만 보면 당장 지점을 폐쇄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2008년 1월 25일 산업단지에 처음 자리 잡은 후 12년째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 중에서는 유일하게 산단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양수 신한은행 새만금금융센터장은 “분할상환, 유예 등 각종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상치 못한 연체가 발생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른 은행들이 다 나간 상황에서 우리까지 없다면 안 되지 않냐”고 밝혔다.

그럼에도 영업 환경은 녹록지 않다. 하

지점장은 “산단에 있던 협력사 4분의 1이 떠났다”며 “최근에도 경매가 이어지고, 은행들은 담보로 잡았던 것을 하나둘 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보 범위를 넘어 신용대출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익산, 전주까지 영업망을 넓히고 옥석 가리기를 통해 신규 여신을 유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지점장은 “본점에서도 GM 관련 공문이 하달된 적 있다”며 “기존 대출 구조와 달리 1년 거치 이후 내년 가동되면 상환하라는 조건이었지만 달성되지 않더라도 본점에 상환금을 줄여달라고 신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함께 산단을 지키고 있는 또 한 곳은 기업은행이다. 기은은 2007년 8월 30일 가장 먼저 공단 내 지점을 오픈했다.

문일성 기은 군산산업단지점 부지점장은 “금리를 높인다거나 일부 상환 요구하는 경우 등 시중은행에서 퇴출 당하는 경우



하양수 신한은행 새만금금융센터장이 새만금개발 구상도를 가리키며 금융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받으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대책은행이라고 해도 부실한 기업들에 신규로 대출을 늘리는 데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요새 새로 대출을 해주는 기업들의 경우 80~90% 정도의 신보 보증을 끼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털어놨다.

더구나 기은은 대책은행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만큼, 보다 낮은 신용등급(C-BB)의 협력사들의 대출까지 떠안고 있다. 특

히 기은은 ‘체인지업 제도’를 통해 협력사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체인지업 제도는 현대중공업과 한국GM 협력사들에 한해 2~3%대의 최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비슷한 신용도의 업체에 대한 대출 금리가 9%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대출 만기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처럼 군산 은행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최악’이라고 지금의 상황을 표현했다. 그런 중에도 일부에서는 새만금 개발과 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 지점장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OCI, 도레이 등 대기업들이 들어왔다”며 “당장은 우리와 거래를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호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성원 농협은행 군산시지부 지점장도 “새만금 산단에 외자유치나 새로운 기업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미 바닥은 찼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만금이나 신재생에너지 단지라든가 새로운 지원책이 나오면서 기대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다”며 “벌써부터 관련 수요를 예측하고 투자하려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 =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김보름 기자 fullmoon@

지원 규모, 한도 절반도 못미쳐… ‘금융 사각지대’ 협력사는 고사

(枯死)

군산에 남은 현대중공업·한국GM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전체 한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이 협력사 대출을 꺼리면서, 금융 ‘사각지대’에 처한 업체들은 부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군산의 피해 협력사들에 대한 여신 규모는 지난해 3월 300억 원대에서 현재 약 600억 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났다. 한은 관계자는 “지원 여신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며 “이 중 한은이 시중은행들에 저리로 대출해준 규모는 3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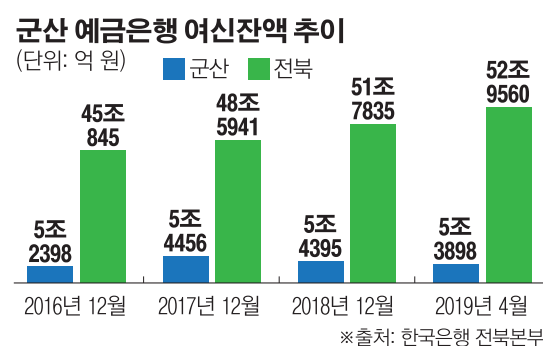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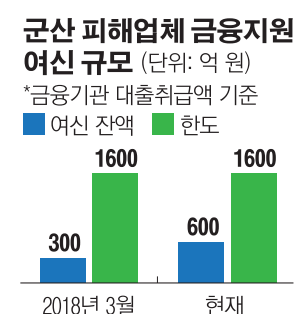
한은 전북본부는 지난해 3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동 중단 등으로 자금 사정에 어

피해 협력사 여신한도 1년여 새 300억→600억 2배 늘어났지만 전체 한도 1600억…턱없이 부족

군산 전체 여신 잔액도 줄어들어 “은행들 기업 여신 소극적” 지적

려움을 겪는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방식의 금융 지원을 실시했다. 한도 400억 원의 금융중개지원대출 방식이다.

시중은행들이 피해업체에 대출을 해준 뒤 금융중개지원을 신청하면 한은 전북본부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0.75%의 금



리로 지원하는 식이다.

이처럼 금융지원을 통한 피해기업의 여신 규모가 늘고 있지만, 애초 한도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한은 전북본부가 금융지원 한도를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600억 원으로 설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600억 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다. 특히 여기에서 집계되는 여신 잔액은 과거부터 진행해오던 ‘중소기업 지원자금’ 중 현대중공업과 한국GM 협력사에 대한 여신 분도 포함된 규모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로 이번 지원을 통해 늘어난 여신 규모는 600억 원보다도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맞물려 군산의 전체 여신 잔액도

줄어들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 4월 군산지역 예금은행의 총여신 잔액은 5조 3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잔액 규모는 2017년 말 5조4456억 원, 2018년 말 5조4395억 원 등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전북 전체 여신이 2017년 말 48조5941억 원, 2018년 말 51조 7835억 원, 올 4월 52조9560억 원 등 증가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업여신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군산의 은행들이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기업 여신까지 소극적이면서 이런 방향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군산 =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김보름 기자 fullmoon@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관련〉

‘개점휴업’ 서 쏟아진 3126개 법안…조세특례법만 65건

상반기 입법 분석 上

올해 상반기 3000개가 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록으로 역대 최대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되레 활발해진 것이다. 올해 법안 발의가 '0잔'인 의원은 26명이었다. 이 중에는 20대 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반기에 발의된 법률안은 총 3126건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유사 법안을 병합해 발의한 법안이 70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66건이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머지 2990건은 의원 발의 법안이다. 지난 6개월간 의원 한 사람당 한 달에 1.7개씩, 평균 10개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활동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대 국회 초반인 2017년 상반기 2586건과 이듬해인 2018년 2651건에 비해 각각 15.6%, 12.8% 증가했다. 국회의 4년차 상반기 수치와 비교하면 증가세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17대 국회(2007년 상반기) 당시 의원발의 법안은 842건, 18대 국회(2011년 상반기)에서는 1464건이었다.

법안 실적은 의원별 편차가 컸다. 가장 많은 법안을 양산한 의원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올 상반기에만 85건이

이학영 의원 85건 발의 '1위'
한 건도 발의 안 한 의원 26명
김무성, 20대 국회 통틀어 0건
초·재선 활발...형법개정안 27건
'실적 부풀리기' 의도 비판도

다. 전체 의원 평균치의 약 9배에 달한다. 화중흥 민주평화당 의원이 총 8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50건)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41건)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38건) △신동근 민주당 의원(37건) △윤일규 민주당 의원(36건) 등이다. 모두 12명이 30건 이상을 발의했다.

정당별로도 차이가 컸다. 한 사람당 법안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이었다. 소속 의원 14명이 총 252개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평화당의 1인 평균 발의 법안은 18건으로 전체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1인당 12.1건(총 1546건), 바른미래당 10건(총 290건), 자유한국당 7.4건(총 841건), 정의당 5.5건(총 33건) 순이었다. 기타 정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의 법안 발의 건수는 평균 3.1건(총 28건)이었다.

통상 법안 발의 실적은 의원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의원들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다면 반길 일이

의원명	선수	소속정당	발의 건수
이학영	재선	더불어민주당	85건
황주홍	재선	민주평화당	81건
김도읍	재선	자유한국당	50건
이찬열	3선	바른미래당	41건
김광수	초선	민주평화당	38건
신동근	초선	더불어민주당	37건
윤일규	초선	더불어민주당	36건
김중희	초선	민주평화당	35건
백승주	초선	자유한국당	34건
신창현	초선	더불어민주당	34건

(기간 : 2019년 1월 1일~6월 30일) ※출처 : 국회의원정보보시스템

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한 데는 일부 의원이 외부 평가 등을 의식해 실적을 부풀리는 데 치중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출된 법안을 보면 기존 법안에서 용어 하나만 바꾼 유사 법안을 무더기로 만들어내거나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거의 베껴 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법을 지나치게 많이 짚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전체 국회의원 11명 중 1명꼴인 26명은 올해 제출한 법안

소속정당	의원수	발의 법안	1인당 평균
더불어민주당	128명	1546건	12.1건
자유한국당	113명	841건	7.4건
바른미래당	29명	290건	10건
민주평화당	5명	252건	18건
정의당	14명	33건	5.5건

선수	의원수	발의 법안	1인당 평균
초선	139명	1580건	11.4건
재선	66명	793건	12건
3선	46명	306건	6.7건
4선	33명	200건	6.1건
5선	9명	70건	7.8건
6선	5명	39건	7.8건
7·8선(각각)	1명	1건	1건

이 '0건'이었다. 장관을 겸직하거나 구속 상태에 있어 입법활동이 어려운 7명의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19명의 법안 발의 실적이 전무였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올해뿐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유일한 의원이었다. 법안 발의가 없는 의원 가운데는 주로 추미애, 정우택, 김무성, 정진석 의원처럼 '중진 이상급' 의원이 많았지만 손혜원, 정종섭, 김종대 의원 등 초선원의 이름도 눈에 띈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선수(選

數)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로 선수가 낮은 의원이 활발했다. 139명 초선의원은 1인당 평균 11.4건, 66명 재선의원은 평균 12건을 발의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3선 의원(46명)과 4선의원(33명)의 평균 발의 건수는 각각 6.7건, 6.1건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오히려 5선의원(9명)이 7.8건, 6선의원(5명)이 7.8건으로 제출한 법안이 더 많았다. 7선의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8선의 서청원 의원도 올해 상반기 각각 1건씩의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으로 총 65건이 발의됐다. 3월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낸 것이다. 형법 개정안도 27건이었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GHB 등 약물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른바 '버닝썬 방지법'이 잇따른 영향이다. 또 내년 총선에 대비해 지방세특례제한법(17건), 지방재정법(10건), 지방자치법(18건) 등 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도 많았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우린 원내대표 선후배”

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얘기하고 있다. 뉴스시스

북미 실무협상 이달 중순쯤 재개
美 비건·北 최설희 라인 가동될 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실무협상이 7월 중순께 시작되고 북측 카운터파트는 외무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결과에 따라 '백악관 햄버거 핵단판'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오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도 앞으로 2~3주 내, 즉 7월 중순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그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이끌 것"이라며 "우리의 카운터파트로 외무성을 상대하게 될 것이지만, 누가 될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어 명 중 한 명일 것 같다"고 말해 북한의 대미 외교를 이끄는 리용호 외무상이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 기존 비핵화 카운터파트였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중심의 통일전선부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라인에서 빠졌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매체들은 '회담'이라고 표현하면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와 조미(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양 정상은) 회담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만큼 방문이 연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다만 미국은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며 ‘속도조절론’을 재확인한 만큼 실무협상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주목된다.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평행선을 달린다면 연내 ‘백악관 햄버거 핵 담판’도 어려워질 수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한국관광공사 선정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Korea's Best 100 Must-Visit Tourist Spots of Korea

꽃미남, 숲, 빛과 향기의 국민수련지



썸머 세이셔널

하이원에만 있는 여름!



흥부자 만흔들고 뒹배져~ 

하이원 뮤직페스티벌

다모이! 영짱남~ 히어로즈 

하이원 뮤비 히어로즈

별밤 빛밤 로맨스각! 

하이원 라이팅 월드

펄펄! 밤마다 터져! 불래? 

하이원 불꽃쇼

넌나에게 포만감을 줬어! 

하이원 스페셜 먹거리

강~ 셔터만 눌러도 인생샷! 

하이원 포토트래블

우주라익 나이스 워러? 

하이원 워터월드

건조마! 피톤치드 뽐뽐~ 

하이원 숲 & 야생화

No 모기! 이불 원쑤? 

하이원 냉방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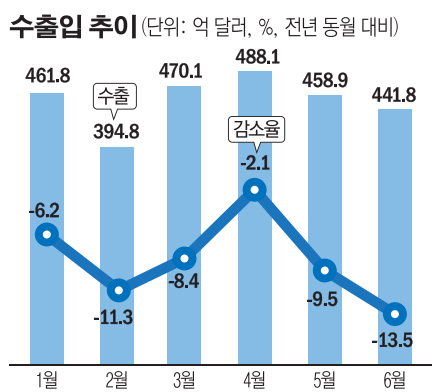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하이원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참조

수출 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출구가 안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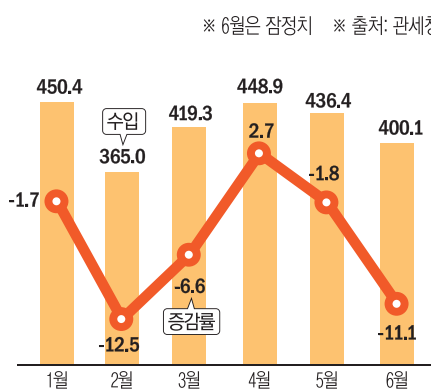
6월 수출 전년대비 13.5%↓… ‘버팀목’ 반도체 22.5% 급감
對中 수출액 1년 전보다 24.1% ‘뒤틀림’… 10년 만에 최악
미중 무역분쟁 탓 세계 교역 위축… 정부 ‘상저하고’ 기대 접어

수출 부진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의 수출액은 2715억5000만 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2975억2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8.5% 줄었다. 6월 월간 수출액도 지난해 510억8000만 달러에서 올해 441억8000만 달러로 13.5% 감소했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품목의 수출 단가 하락과 미·중 무역 분쟁 등을 올해 수출 부진 요인으로 꼽았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의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액(474억7100만 달러)은 1년 전(612억6600만 달러)보다 22.5% 급감했다. 데이터센터 수요가 줄고 있는 데다 수출 단가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8기가 D램 반도체 가격은 3.4달러로 1년 새 60.2% 떨어졌다. 석유화학 수출액도 249억5900만 달러에서 217억1800만 달러로 13.0% 줄었다. 유가 하락으로 수출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설비 가동률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하면서 전 세계 교역이 위축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길어지면



미국, 중국 등에 반도체, 석유제품 등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도 덩달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791억8500만 달러에서 올해 657억9900만 달러로 16.9% 감소했다. 특히 지난달 대중(對中) 수출액



은 1년 전보다 24.1% 급감했다. 월간 기준으로 2009년 5월 이후 10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아세안 지역 수출 역시 489억1600만 달러에서 472억5000만 달러로 3.4% 감소했다. 다만 대미 수출(369억3100만 달러)은 자동차와 휴대전화 등의 선전에 힘입어 7.2% 증가했다.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당초 산업부 등은 하반기 수출 실적이 개선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를 기대했지만, 주력 품목 단가가 계속 하락하는 데다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 규제 등 악재도 여전하다. 지난달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는 올 3분기와 4분기에도 D램 가격이 각각 15%,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하며 올해 총수출액이 569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사실상 기대를 접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연초의 전망보다는 (실적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관공서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

관공서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서 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키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건강 500만 원 이하 소액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정부구매키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사용실적 7181억 원에 달했다. 국고금관리법은 관서 운영경비를 정부구매키드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제로페이를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병행해 사용하는 데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제로페이는 결제수수료가 없는 데 반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결제수수료는 연 매출 8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각각 0.8~1.4%, 0.5~1.1%다. 기재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법안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과 재정정보 시스템 간 연계가 완료되면 하반기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농협 창립 58주년 기념식
이개호(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협 창립 58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전기로 누진제 완화 수용한 한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손질 추진

폐지 댄 4000억 손실 메워
“또 세금으로 보전하나”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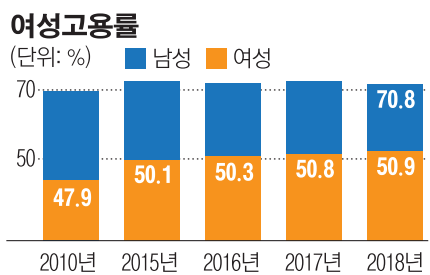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적용되는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수용하는 대신 정부에 할인 부담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었다. 한전은 내년에 정부로부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인가 받아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하는 누진제 완화·할인 손실을 메우기로 했다. 한전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한전 이사회가 지난달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누진제 완화에 따른 손실 보전을 약속 받은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한전은 누진제 완화로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현행 누진제 1단계 구간의 소비자(월 200kWh 이하

사용)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주로 전기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한전이 올해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담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면 법적 절차를 거쳐 인가할 계획이다. 이를 폐지하거나 2000원 정도로 조정하면 한전의 손실은 연간 2000억~4000억 원 줄어든다. 정부는 한전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방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특별회계 등을 통해 한전의 누진제 할인 부담을 일부 보전해줄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한전에 대한 손실 보전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기본적인 재정 지원에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손질로 반발이 예상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미혼 증가에 여성 가구주 0.5%P↑… 女 고용률은 정체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직업, 서비스·판매직에 몰려
男과 평균임금 격차 111만원

올해 여성 가구주 비율이 전년보다 0.5%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혼 여성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늘어서다. 특히 50대에서 미혼 여성 가구주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올해 여성 인구는 2579만6000명으로 총인구의 49.9%를 차지했다. 성비는 100.5명으로 전년과 같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4년에는 97.9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



로 50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 늘고, 50세 미만에선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줄었다.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총 622만4000가구로, 14만8000가구 늘었다. 여성 가구주 비율도 30.7%에서 31.2%로 0.5%P 확대됐다. 미혼·이혼이 여성 가구주 증가를 주도했다. 미혼 여성 가구주는 20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 늘었으며, 증가율은 50대(10.7%)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여성 고용률은 2015년(50.1%) 이후 정체돼 있다. 2018년에는 50.9%로 전년보다 0.1%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사무 종사자 비율은 2018년 20.2%로 전년보다 0.8%P 상승했으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서비스 종사자(17.3%), 판매 종사자(13.5%), 단순노무 종사자(15.0%)에 여성 취업자의 상당수가 쏠렸다. 비정규직 비율이 41.2%에서 41.5%로 올랐다. 이로 인해 남녀 간 월 근로시간 차이가 2018년 11.9시간으로 전년보다 0.5시간 좁혀졌음에도 월 평균임금 격차는 112만원에서 111만3000원으로 7000원 주는 데 그쳤다. 그나마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8.8%로 1.6%P 올랐다. 15~54세 경력단절여성들은 2018년 184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000명(0.8%) 늘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지방 이전 공기업 19곳 부동산 매각 못해

국토부, 5일 매각 설명회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부동산이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다. 종전부동산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2019년 제1차 종전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5일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각 대상 부동산은 총 19개로 정부 소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중앙119구조본부 2개 기관, 정부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0개 기관의 종전부동산과 매입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7개 부동산이다. 매각예정액은 1조4231억 원에 달한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안양), 한국광해관리공단(종로), 한국교육개발원(서

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초), 한국산업단지공단(구로), 한국예탁결제원(고양), 한국인터넷진흥원(서초), 한국전력기술(용인), 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 등은 알짜 부동산이다. 국토부는 이제까지 총 119개의 종전부동산 중 107개의 물건을 매각했으며 매각 완료된 종전부동산은 개발을 통한 주거시설과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상업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투자설명회 개최 등 홍보와 매매각 부 부동산의 매각 장애요인 개선, 매각방식 다양화, 부동산별 맞춤형 매각전략 수립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투자회사·건설사·자산운용사·금융사 및 개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매각 대상 물건에 대한 상세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독일은 자동차 |

| 이탈리아는 콜로세움 |

| 프랑스는 에펠탑 |

대한민국에는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전 세계 220여 개국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브랜드입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스마트한 세상을 위한 열정과 도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기관
접수기간	2019. 5. 1 ~ 2019. 7. 19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openidea.skhyunix.com)

G2 반도체 패권전쟁... 日업체 품고 체급 올린 美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전쟁에 일본까지 가세하게 됐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가 일본 고쿠사이일렉트릭을 약 2500억 엔(약 2조7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지아신문이 보도했다.

미중 기술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AMAT는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자동차와 산업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고급 반도체 장비 개발을 위해 고쿠사이 인수에 나섰다. 신문은 전했다.

고쿠사이는 히타치국제전기에서 분사한 반도체 장비업체로, 미국 사모펀드 KKR가 2017년 히타치제작소로부터 인수했

다. AMAT는 연내 KKR로부터 고쿠사이의 주식 전량을 취득할 예정이며, 조만간 인수 소식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5G 시대에는 자율주행차량이나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생산효율을 높인 ‘스마트 공장’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자동차와 산업기계 등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부가가치 반도체 개발이 요구된다.

고쿠사이는 반도체 웨이퍼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성막장치에 강점을 갖고 있다. 리서치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고쿠사이 인수 후 AMAT는 글로벌 반도체 전공정 장비시장에서 점유율이 18%에서 20%대로 높아진다. 반도체 장비는 웨이퍼 생산에서

AMAT, 日 장비업체 2.7兆에 인수 ‘반도체 굴기’ 中 승인 여부 미지수

글로벌 반도체 장비시장점유율 (2018년 매출, 전공정 기준)			
기업명	국가	점유율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미국	18.5%	
ASML	네덜란드	16.4%	
램리서치	미국	15.1%	
도쿄일렉트론	일본	15.1%	
KLA텐코	미국	5.5%	
스크린세미컨덕터솔루션즈	일본	3.0%	
고쿠사이일렉트릭	일본	2.0%	
히타치하이테크놀로지스	일본	2.0%	
세메스	한국	1.9%	
다이후쿠	일본	1.6%	
기타		18.9%	

※출처: 니혼게이지아신문

회로를 입히는 작업까지인 전공정과 조립과 검사, 모듈 작업인 후공정으로 나뉜다.

신문은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우수한 일본 장비업체를 끌어들이 업계 재편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AMAT의 반도체 장비업체 재편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MAT는 2013년 도쿄일렉트론과의 합병을 발표했지만 미국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해 백지로 끝났다.

이번에는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중국 당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일환으로 반도체 자급자족을 목표로 반도체와 관

련 장비산업을 육성하는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고 있다. AMAT는 중국 측에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고쿠사이 인수에 더욱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반도체 장비업체 임원은 “중국 당국이 이번 인수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4월 자국 기업이 거래에 주의해야 할 이른바 ‘미확인 리스트(Unverified List)’에 37개 중국 기업과 대학 등 연구기관 리스트를 포함했다. 이는 화웨이테크놀로지에 적용했던 블랙리스트인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는 아니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문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요구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 대규모 시위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의 1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홍콩 입법회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유리문을 부수고 있다. 원래 주권 반환 기념 행사는 입법회 건물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홍콩 정부가 시위대를 피해 홍콩 컨벤션 센터로 장소를 바꾸면서 시위대의 감정이 더욱 격해졌다.

홍콩/EPA연합뉴스

“Show보다 SNS”... 도요타, 獨 모터쇼 불참

소비자 정보수집 방법 다양해져 박람회 비용 대비 효과 감소

소셜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신제품 홍보의 각축장 역할을 해온 국제 산업박람회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니혼게이지아신문은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올가을 열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모터쇼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1일 보도했다. 1977년부터 꾸준히 참가해온 도요타가 42년 만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다른 업체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격년으로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는 약 1000개 업체가 참가한다.

신문은 소셜미디어의 보급으로 소비자들의 정보수집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줄어든 것이 도요타가 불참을 결정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요타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프랑크푸르트 국제모터쇼에 참가해왔다. 하지만 도요타의 유럽 판매 실적은 신통치 않다. 올해 3월 마감한 2018 회계연도에 도요타의 유럽 신차 판매 대수는 99



지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모터쇼 기간 한 참가객이 도요타 부스에서 신차를 살펴보고 있다. 프랑크푸르트/AP뉴스

만4000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모터쇼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수천㎡의 대형 부스를 두는데, 그 비용이 1억 엔(약 11억 원)이 넘는다.

이에 도요타는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최근에는 유럽 전시회에서 기자 회견을 무대를 없애기도 했다.

앞서 2017년에는 프랑스 푸조시트로 영국과 일본 닛산자동차가 불참을 선언했다. 프랑크푸르트는 일반적으로 독일 기업들이 전시회를 주도하는데, 독일 명차 BMW도 올해는 전시 면적을

3600㎡로,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한다.

기업들의 국제 산업박람회 이탈은 자동차 분야에 국한된 건 아니다. 스위스에서 올해 3월 열린 세계 최대 시계·보석 박람회 ‘바젤월드’에 세계 최대 손목시계 업체인 스와치그룹이 불참했다. 그동안 스와치는 오메가와 해리윈스턴 등 럭셔리 브랜드로 행사의 모객을 담당했는데 올해는 아예 빠진 것이다. 올해 바젤월드 참가 업체는 520개사, 방문자 수는 8만1000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20% 감소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1월에 열린 고급시계 박람회 ‘제네바 살롱’도 스위스 명품 업체들이 철수하면서 ‘양고 없는 전뺑’ 신세가 됐다.

또 유럽 최대 IT 전시회인 ‘CeBIT’도 작년을 끝으로 산업장비 박람회인 ‘하노버 메세’와 통합했다. 그럼에도 올해 하노버 메세 방문객 수는 21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치며 통합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2019년 상반기 글로벌 IPO 톱5
(단위 : 억 달러)

국가	기업명	20	40	60	80
1위 미국	우버				
2위 미국	어벤터				
3위 미국	리프트				
4위 이탈리아	넥시				
5위 미국	핀터레스트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2019년 상반기 글로벌 M&A 톱5
(단위 : 억 달러)

국가	기업명	100	400	800
1위 미국	UTC-레이시온			
2위 미국	BMS-세엘진			
3위 사우디	아람코-사빅			
4위 미국	에브비-앨러간			
5위 미국	옥시덴탈-아나다르코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美, IPO·M&A 시장 ‘독주’

글로벌 톱5 IPO 중 4개 휩쓸어...M&A 규모도 20% 급증

미국이 올해 들어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IPO 규모 상위 5개사 중 4개를 미국이 휩쓸었다.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테크놀로지(81억 달러(약 9조 36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화학업체 어벤터(33억 달러·2위)와 우버 경쟁사 리프트(26억 달러·3위), 소셜미디어 핀터레스트(16억 달러·5위)가 5위 안에 들었다. 미국 이외 기업으로는 이탈리아 금융결제 업체 넥시가 23억 달러(4위)로 유일하게 순위에 들었다.

M&A 시장에서는 미국의 독주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M&A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 급증한 1조5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국 제약업체 애브비가 지난주

보톡스 제조업체 앨러간을 63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유니티테크놀로지스(UTC)는 지난달 항공우주 관련 부품 사업을 방위산업 대기업 레이시온과 860억 달러에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연초에는 제약 대기업 브리스톨마이어스스쿱(BMS)과 경쟁사인 세엘진의 810억 달러 규모 초대형 M&A가 있었다. 상반기 글로벌 M&A ‘톱5’ 중 미국 이외 M&A 건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가 690억 달러에 석유화학기업 사빅을 인수한 게 유일했다.

미국 이외 다른 국가들은 지정학적 긴장과 경기 둔화를 배경으로 M&A가 위축됐다. 아시아는 중국의 경기둔화로 인해 기업들이 M&A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유럽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앞으로 10년... ‘富의 대물림’ 몰아친다

슈퍼리치들, 2030년까지 15.4兆 달러 상속 추정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슈퍼리치들의 천문학적 액수의 ‘부(富)의 대물림’이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글로벌 부호 자산 컨설팅업체 웰스엑스에 따르면 2030년까지 15조4000억 달러(약 1경7810조 원)에 이르는 세계 부유층의 자산이 자녀에게 상속될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 상속이 예정된 자산가들은 모두 55만 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자산 상속 규모는 282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순자산이 3000만 달러가 넘는 슈퍼 리치 6만8900명이 물려주는 자산은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10조4000억 달러(1인당 1억5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인 울트라 리치 1만8500명의 상속 재산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8조 달러에 이른다.

이번 보고서는 500만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을 상대로 조사했다. 대상자는 전 세계 260만 명, 이들의 순자산 합

친 금액은 약 57조 달러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북미에서의 부의 이동이 가장 클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서 부유층의 재산 상속 규모는 8조8000억 달러로 예상되고 이중 3조2000억 달러가 유럽에 해당한다.

반면, 아시아 부유층의 상속 규모는 1조8800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아시아 부유층의 재산 증식이 비교적 최근에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웰스엑스는 글로벌 초부유층의 부의 대물림이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콧 해슬리 블랙록 이사는 “그동안 ESG 부문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면서 “자산 분류에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하나은행>

내 옆자리에 다른 부서 직원이?… ‘하나된 조직’ 큰그림 그린 지성규

KEB하나은행 ‘스마트워킹센터’ 9월 완성

KEB하나은행이 최근 서울 을지로 신 사옥의 사무공간을 재배치했다.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촉진해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글로벌그룹 사무실을 18층에서 22층으로 옮겼다. 디지털그룹(22~23층)과 같은 층이다. 또 24층에 있던 영업지원그룹은 연금사업부(18층)와 WM사업부(21층)와 가까운 18~19층으로 내려보냈다. 눈여겨볼 만한 공간은 ‘스마트워킹센터(가칭)’다.

행장실 (25층) 바로 아래 조성되는

그룹간 협업 프로젝트 많아져
부서 상관 없이 자율 근무
공유오피스 형태로 업그레이드

“절차 간소화·업무 효율성 향상”

이 공간은 그룹, 부서, 팀에 상관없이 근무와 회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다. 프로젝트 위주로 구성된 팀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업무 속도를 높이는 의도다.



통을 활발하게 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 형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며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워킹센터는 하나은행이 2017년 말 이후 서울 을지로 신사옥 전체에 적용 중인 스마트오피스의 완성판이다.

현재 컨설팅 단계로 9월 완성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본점 4층과 7층에 회의공간이 있지만 보다 부서 간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 형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며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오피스는 지정 좌석 없이 누구나 원하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업무할 수 있도록 만든 개방·공유형 사무공간이다. 본부장 이상 임원을 제외한 부장, 팀장 등 모든 직원이 자리를 옮겨야 한다. 좌석마다 놓인 컴퓨터에 개인 ID로 로그인만 하면 작성 중인 문서나 저장한 파일 등을 불러올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도 깔려 있다. 하나은행은 인천 청라데이터센터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등 관련 시스템 전반도 업그레이드 한다.

최근 은행에는 특정 부서나 팀 단위를 뛰어넘어 협업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졌다.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내 인

도네시아 라인뱅크 출범 작업을 담당하는 L프로젝트 팀은 수신·여신·외환·IT·경영관리·카드·콜센터 담당 등 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해외출장이 잦고 부서 간 인원으로 섞여 있어 을지로 공유오피스에 사무실을 두고 일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주요 거점별로 스마트워킹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유연근무제나 업무상 외근이 필요한 직원들이 소속 사무실로 복귀할 필요 없이 스마트워킹센터에서 일을 하다 퇴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우리금융, 사업총괄제 시행 “對고객 서비스 역량 극대화”

글로벌·디지털 부문 등 통합
체계적 관리로 그룹사 시너지
자금세탁방지·연금부도 신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사별로 운영 중인 WM, 글로벌, CIB, 디지털 부문 등을 그룹 차원에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총괄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 사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연금기획부를 신설하고,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자금세탁방지팀도 신설했다.

WM총괄(산하 WM기획부 신설)은 그룹 자산관리 부문의 역량을 집중해 그룹 차원의 경쟁력 강화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글로벌총괄(산하글로벌기획부 신설)은 일원화된 그룹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고,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그룹으로서 그룹사 간 동반 해외 진출 및 협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CIB

총괄(산하 CIB기획부 신설)은 은행과 증권 간 기존 CIB부문 협업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그룹 차원에서 CIB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디지털총괄(산하 디지털혁신부 확대 재편)은 디지털혁신부 내에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디노랩)을 운영해 그룹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 육성을 활성화하는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경영기획총괄 산하에는 퇴직연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금기획부를 신설해 고객 수익률 중심의 퇴직연금 사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룹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통한 일관된 정책 수행을 위해 준법지원부 산하 자금세탁 방지팀도 신설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그룹사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고객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객진산 기자 jinsan@



국민銀 ‘핀테크 해커톤’ 대회 성료

KB국민은행은 신규 핀테크 서비스 발굴을 위한 ‘KB-KISA 핀테크 해커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서울 송파구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33개 팀 126명이 참가했다. KB국민은행의 API,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였다. 참가팀 중 ‘별 빛이 내린다’ 팀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금리 인하 서비스를 개발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KB국민은행은 신규 핀테크 서비스 발굴을 위한 ‘KB-KISA 핀테크 해커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서울 송파구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33개 팀 126명이 참가했다. KB국민은행의 API,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였다. 참가팀 중 ‘별 빛이 내린다’ 팀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금리 인하 서비스를 개발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 KB국민은행

작년 대부업 대출잔액 17.3兆… 4년 만에 첫 감소

거래자 수도 15만4000명 줄어

지난해 말 기준 대부 대출 잔액이 2014년 말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대부 대출 잔액은 17조3487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출 잔액 17조4470억 원보다 983억 원(0.6%) 감소했다. 대출 잔액은 2014년 말 11조2000억 원에서 2017년 말 16조5000억 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상반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했다.

유형별로는 대형 대부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4000억 원 줄어 들었고, 중소 대부업자는 같은 기간 2000억 원 증가했다. 대부 이용자 수 역시 감소했다. 거래자 수는 지난해 말 236만 명에서 15만4000명 감소한 221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말 이후 3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

2018년 대부업 대출잔액 및 이용자수 현황				
	2018년 12월 말(A)	2018년 6월 말(B)	2017년 12월 말	증감률(A-B)
대출잔액(원)	17조3487억	17조4470억	16조5014억	-0.60%
이용자수(명)	221만3000	236만7000	247만3000	-6.50%

※ 출처: 금융위원회

세부적으로 신용대출은 9600억 원 감소한 11조77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담보대출은 8700억 원 증가한 5조58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자산 100억 원 이상 대부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0.3% 포인트(P) 증가한 7.3%로 지속 상승세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 축소와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 서민금융 확대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19.6%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P 하락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했지만, 담보대출 금리는 0.1%P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등록업자는 8310개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2개 증가했다. 형태별로는 대부업(58개)과 대부중개업(27개), 대부·중개 겸업(27개), P2P대출 연계대부업(30개) 등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잔액이 2014년 말 이후 최초로 증가세를 멈추고 이용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대부업 영업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저신용자 신용공급 상황과 시중금리 동향을 파악해 저신용 취약차주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롯데손보, 100세까지 요양자금 최대 1.8억 보장

무배당 골드플랜 간병보험 판매

롯데손해보험은 1일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최대 100세까지 요양자금과 요양연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무배당 롯데 골드플랜 간병보험’을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약정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별도로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진단비(최초 1회)와 장기요양연금(5년간 매월 지급)을 합쳐 최고 1억8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하면 일시 지급 보험금 외에 5년간 매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50% 또는 80%이상 후유 장애 시 같은 기간 동안 후유장애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3대 성인병(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와 CI 진단비 등 다양한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골절 진단비와 상해·질병 수술비·입원비 등 장기요양 이외의 다양한 보장항목들도 자유롭게 추가 구성이 가능하다.



사진제공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장기상품팀 김태수 팀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평균수명 증가와 더불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간병보험 최고 수준의 요양자금을 보장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상품은 80세·90세·100세 만기로 가입 연령은 20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1~4등급) 판정시 갱신 보험료를 제외한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장병적금’ 출시 10개월 만에 가입자 20만명 돌파

연 5% 금리에 비과세 매력까지 갖춘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 10개월 만에 가입자 수 20만 명을 넘어섰다.

1일 금융위원회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6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20만607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계좌 수는 28만3026개이며, 가입금액은 533억1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말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 이상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병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역 병은 물론 상근예비역,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월 적립 한도는 은행별 20만 원,

병사 개인별 40만 원이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연 5% 이상 금리 적용을 위한 최소가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을 기준으로 군 복무 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면서 5% 이상 금리가 제공되는 최소가입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15개월로 조정됐다. 단 기존 가입자들은 그대로 18개월간 가입을 유지해야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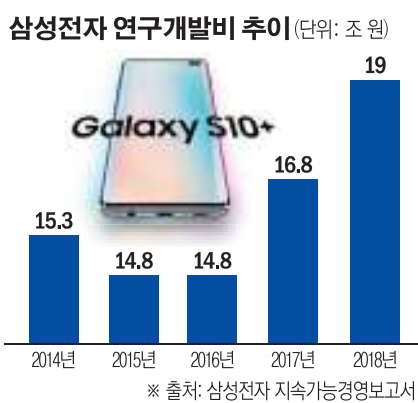
삼성전자 R&D 인력 비중 4년 만에 21% 훌쩍

지난해 전 세계 연구진 6.6만명
위구연 박사 등 최고 인재 영입
연구개발비도 2.2조 늘어 19조

삼성전자가 최근 주요 IT·반도체 기업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 및 비용을 크게 늘렸다.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자 R&D 관련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1일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R&D 인력은 6만6328명으로, 2017년(6만5494명)보다 834명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R&D 인력은 2014년(7만398명)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6만5602명, 6만2546명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지만,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체



임직원 대비 R&D 인력 비중을 살펴봤을 때도 작년에 21.4%를 기록해 2014년(22.1%) 이후 처음으로 21%를 넘겼다.

연구개발비도 최근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집행한 연구개발비는 19조 원으로 전년(16조8000억 원)보다 2조 원 이상 늘었다. 2015년, 2016년에 나란히 14조8000억 원을 기록하며 정체기를 맞았지만, 2017년(16조8000억 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삼성전자가 R&D 인력 및 비용을 늘리는 데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4차 산업혁명,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애플, MS(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자 R&D 및 인력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애플은 AI(인공지능)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글 출신 AI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삼성전자는 작년 6월 AI 분야 권위자인 미국 프린스턴대 세바스찬 송 교수와 펜실베이니아대 다니엘 리 교수를 영입했다. 두 교수는 1999년에 인간의 지적 활동을 그대로 모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약 두 달 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AI, 5G(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사업 등에 약 25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

재 영입을 멈추지 않는다. 올해 3월에는 AI 분야 세계적 석학인 미국 하버드대 위구연 교수를 영입했다. 위 교수는 세계 최초 비행 곤충 로봇 로보비의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같은 시기에 영입된 장우승 박사는 박테이터 분석 전문가다. 시스템 반도체 중 하나인 NPU(신경망처리장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문 인력을 현재의 10배 이상인 2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R&D 투자도 더욱 늘릴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4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R&D 분야에 7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5G,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R&D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기업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R&D 투자 및 인재 영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LG 클로이 로봇이 안내

LG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경기 고양시에 있는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클로이 안내로봇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클로이 안내로봇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시설 위치, 운영시간을 포함한 전시장 안내 △전시차량 안내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클로이 안내로봇은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등도 지원한다.

LG전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로이 안내로봇에 자체 개발한 로봇관계 시스템인 RSDP(Robot Service Delivery Platform)를 처음 적용했다. RSDP는 관리자가 로봇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로봇 상태 확인, 일정 관리, 콘텐츠 업데이트 등이 가능하다.

양사는 한 달 동안 클로이 안내로봇 1대로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8월 중순부터 3대로 늘려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SK하이닉스, 30개 협력사와 반도체 폐기물 줄인다

‘에코 얼라이언스’ 출범

SK하이닉스가 30개 협력사와 함께 반도체 업계 환경문제 해결에 나선다.

SK하이닉스는 친환경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에코 얼라이언스(ECO Alliance)’를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에코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별 환경경영 목표 설정 △에코 얼라이언스 공동 환경 목표 설정 △새로운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통해 반도체 산업 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30개 협력사는 참여기업별 환경경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까지 환경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환경목표는 지속적 환경보호 노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치로 온실가

스, 폐수, 폐기물 등의 감축 목표를 뜻한다. SK하이닉스는 참여기업에 전문기관 컨설팅과 주기적 담당자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에코 얼라이언스 전체 공동의 환경 목표도 추진한다. 일회용 폐기물 발생 제로 캠페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공동 활동을 통해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금액으로 측정하고, 연 1회 콘퍼런스를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활동 성과와 계획을 검증받을 계획이다.

한편, 에코 얼라이언스는 최종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동시에 창출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간다. SK하이닉스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반도체 제품 재사용 등의 경험이 공유되면 다양한 사업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SK하이닉스 에코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30개 협력사 대표와 환경분야 담당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SK하이닉스

현대상선, 3대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 가입

현대상선이 세계 3대 해운동맹의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정회원사로 가입했다.

현대상선은 2017년 4월부터 2M 얼라이언스와 ‘2M+H’라는 전략적 협력관계 계약을 맺었지만 2M과의 전략적 협력이 2020년 3월 종료 예정이라 새로운 해운동맹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양수산부와 현대상선은 1일 내년 4월부터 현대상선이 디 얼라이언스에 정회원사로 가입해 협력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디 얼라이언스의 회원사는 Hapag-Lloyd(독일), ONE(일본), Yang ming(대만)이다.

디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은 현대상선의 가입과 함께 해운동맹 협력 기간을 향후 10년간인 2030년 3월까지로 연장했다. 이로써 현대상선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선대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상선의 이번 디 얼라이언스 가입은 선박 공유 등 모든 조건에서 기존 회원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는 정회원사 자격이다.

이번 해운동맹 가입으로 현대상선은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비용 구조 개선, 서비스 향로 다변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삼성중, 1300억 유럽 특수선 수주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유럽 지역 선사로부터 1348억 원 규모 특수선 1척을 이사회 승인 조건부로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선박은 2022년 3월에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LNG운반선 10척, 원유운반선 2척, 특수선 1척, FPSO 1기 등 총 14척(32억 달러)을 수주해 올해 목표 78억 달러의 41%를 달성했다. 특히

LNG운반선 수주의 경우 클락슨리서치 기준 상반기에 발주된 대형(17만㎥ 이상) LNG운반선 24척 중 10척(42%)을 차지하며 시장에서 ‘LNG운반선 명가’로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하반기에 대규모 LNG운반선 발주는 물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의 발주도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적극 공략해 수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시작

현대중, 공정위에 신청서 제출
EU·日·中·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도 확정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인수를 위한 핵심 절차인 기업결합 신청에 본격 착수했다. 1월 31일 두 회사가 합병을 결정한 이후 5개월 만이다.

한국조선해양은 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에서는 관련 시장의 확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 중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9개국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각 경쟁당국이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주요 신청국의 하나인 EU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4월부터 협

의에 나섰다. 조선업 주요 선사들이 위치한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며,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反)독과점 전통이 강한 EU는 해외 심사 중에서도 가장 난관이 예상되는 지역이어서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그 어떤 국가보다 협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EU의 기업결합 평가 중 승인 건수가 불승인 건수를 앞질러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7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다.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33건만 불승인됐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고 해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결합 심사, 산업은행과의 지분 교환 등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SK이노 임직원 소셜벤처 펀딩
한시간도 안돼 19.5억 목표 달성

1일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8일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셜벤처 크라우드펀딩이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구성원 1000여 명이 참여해 모은 약 19억5000만 원의 투자금은 각 구성원이 선택한 4개 소셜벤처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사용된다. 4개 소셜벤처는 각각 파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인진, 해조류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마린이노베이션, 일회용 산소마스크를 생산하는 오투옴, 휴대용 수력발전기를 생산하는 이노마드 등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환경 분야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SV제품 임팩트 파트너링 모델’을 구축, 구성원과 소셜벤처의 퍼트너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공’으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현대차 500명 무료 렌탈 이벤트

현대자동차가 여름휴가 기간 현대차를 무료로 빌려 탈 기회를 선사하는 ‘써머 홀리데이 렌탈 이벤트’를 한다.

1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써머 홀리데이 렌탈 이벤트’는 이달 26일부터 30일,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두 차수에 걸쳐 4박 5일 동안 총 500여 명의 고객에게 렌탈 시승 기회를 준다. 이번 이벤트는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벤트 대상 차로 △아반떼 △i30 △벨로스터 △쏘나타 △그랜저 △그랜저 HEV △코나 △투싼 △싼타페 등 250대를 마련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10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승센터와 차종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현대차는 추첨을 통해 총 500명의 당첨자를 16일 발표한다. 유창욱 기자 woogi@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하나글로벌스코프3.0으로 투자의 기회를 넓혀라



멀리 보고 !

불확실성의 시대,
해외(달러)채권으로 멀~리 내다보자

▶ 해외채권, 달러채권

꼭 짚고 !

*국내 정상급 리서치센터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꼭 추천받는 해외주식

▶ 해외주식, 해외랩



다양하게 !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상황에 맞는 대응!
하나금융투자 포트폴리오로 다양하게

▶ 해외 공모·사모펀드
▶ ELS/DLS



해외투자 종합 솔루션 | 하나글로벌스코프3.0으로 더 넓은 투자 기회를 만나보세요!



* 한국경제 2018 Best 증권사 대상, 매일경제 2018 Best 리서치 1위 (2016년부터 3년 연속)

*투자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가입 전 (간이)투자설명서 필독 *해외주식
매매수수료는 국가별, 주문별 상이, 홈페이지 참조 * (해외)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현지사정에 따라 결제일이 지연될 수
있음 *랩어카운트는 고객계좌별로 운용, 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계좌별로 운용실적이 상이할 수 있음 *청약의 권유는(예비, 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름 *채권은 발행사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 *파생결합증권의 수익률은 조건 충족시 최대 수익률에 불과,
수익률달성 비보장, 투자전 확인 *투자자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가능 CC브랜드190429-245

 하나금융투자

m.hanaw.com | 1588-3111

‘최정우 취임 1년’ 포스코 신성장 사업 성과 보인다

‘2차전지 소재’ 실적 전망 밝아
포스코케미칼 1.6조 매출 예상
경쟁력 있는 철강사 세계 1위에

“경쟁 열위 사업은 재편해 새로운 성장 사업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7월 27일, 취임사)

“신성장 사업은 ‘철강부문’과 동급인 ‘신성장 부문’으로 조직을 격상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취임 100일 ‘100대 과제’ 발표)

“그룹 핵심사업으로 육성 중인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것입니다.” (2019년 1월 2일, 신년사)

2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주요 공식석상에 나설 때마다 선택한 어휘들은 ‘개혁’ ‘성장’ ‘최고’였다.

역대 회장들이 취임 초기에 구조조정, 실적 개선 등 내실 다지기에 집중했다면, 최 회장은 ‘미래 먹거리’에 관심을 보이며 과감한 투자의지를 보여왔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업무 시작과 함께 포스코의 ‘새로운 50년’을 고민했다. 전 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포항제철소 2고로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

직원의 의견도 최대한 경청했다. 이어 취임 100일째 되던 날,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100대 경영개혁 과제’라는 결과물을 내놔다.

그중 눈에 띄는 대목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였다. 이를 위해 우선 철강에 집중돼 있는 사업조직을 보완하기 위해 신성장 부문을 신설했다. 특히 신성장동력으로 2차전지(충전식 배터리)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핵심 소재의 공격적 투자를 약속

했다. 2021년까지 신성장 부문 투자 비중을 13%(3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시너지’라고 판단,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켄텍과 양극재 업체인 포스코ESM을 합병하고, 통합법인 이름을 ‘포스코케미칼’로 변경했다. 5월에는 포스코케미칼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도 성공했다.

아울러 지난달 말에는 글로벌 2차전지

소재 시장을 선도하고 제품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포스코그룹 2차전지소재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이 역시 ‘100대 과제’에 포함돼 있는 최 회장의 약속이었다. 2차전지소재연구센터에서는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증대를 위한 ‘고용량 양·음극재 제품’ 개발과 배터리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지소재 신(新) 공정기술’ 개발 및 차세대 전지를 위한 ‘핵심소재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이처럼 최 회장이 지난 1년간 혁신을 거쳐 미래에 투자한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

우선 2차전지 부문 실적 전망이 밝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 1조 5956억 원, 영업이익 1120억원으로 예상되며 2021년 영업이익은 1770억 원으로 3개년 평균 25%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2차전지 소재 부문에서만 매출액 17조 원,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포스코가 올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에 성장된 것도 최 회장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WSD는 지난달 17~19일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철강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포스코를 선정했다. 특히 포스코는 7개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 여기에는 신성장사업 육성, 투자 환경, 기술혁신 등 최 회장이 그동안 애착을 보인 항목이 대거 포함됐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전영현 사장 “더 큰 성장 위한 혁신 준비”

삼성SDI 창립 49주년

전영현 삼성SDI 사장이 창립 49주년을 맞아 ‘차별화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주문했다. 삼성SDI는 1일 기흥사업장에서 전영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SDI 창립 4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 사장은 창립기념사에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혁신적인 문화가 자리 잡아야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며 “디스플레이에서 에너지&소재 기업으로 변신을 거듭해온 우리의 혁신DNA를 바탕으로 더 큰 성장을 위한 혁신을 담대하게 준비하자”고 밝혔다.

전 사장은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혁신’을 위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혁신 문화 정착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차별화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주요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패에도 서로 격려해주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즐겁게 일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영현(가운데) 삼성SDI 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창립 49주년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SDI

또한 연구, 개발, 제조 등 각 부문이 원팀(One-Team)이 돼서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자고 설렘했다. 전 사장은 이어 품질과 안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제1의 가치라고 강조, ‘세이프티 퍼스트(Safety First)’ 경영 방침을 명확히 했다.

한편 창립기념식은 배터리 R&D 기능 강화를 위해 신축된 ‘E3동’에서 진행됐다. 삼성SDI는 작년년부터 천안, 울산, 기흥 등 전 사업장에 걸쳐 인프라 개선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E3의 E는 삼성SDI의 대표 이미지인 ‘Eco’와 주력사업인 ‘Energy’를 의미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LG전자, ‘펜’으로 북미 보급형 스마트폰 공략

‘스타일로5’ 26만원에 출시

LG전자가 스타일러스 펜을 탑재한 스마트폰 ‘LG 스타일로5(LG Stylo5)’로 북미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미국에서 알뜰폰 이동사 ‘크리켓’을 통해 보급형 스마트폰 ‘LG 스타일로5’를 출시했다. 가격은 229.99달러(약 26만 원)이다.

이 제품은 LG전자가 작년 6월 출시한 ‘LG 스타일로4’ 후속 모델로 갤럭시노트 처럼 스타일러스 펜을 탑재했다. 다만 국내 출시 계획은 아직 없다고 LG전자 측은 밝혔다.

LG 스타일로5는 6.2인치 디스플레이에 OS(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9 파이다. 32GB의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 3GB 램,



표준 3.5mm 헤드셋 잭 및 3500mAh 배터리를 갖췄다. 뒷면에는 1300만 화소 카메라와 지문 스캐너가 장착돼 있다.

전면에는 500만 화소 광각 셀카카메라가 포함돼 있다. 스타일러스 펜으로 화면 꺼짐 메모(화면을 켜지 않고 메모를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음), 팝 렌즈(돋보기 텍스트) 및 그림 그리기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송영록 기자 syr@

Seoul Garden Hotel

우정노조 쟁의조정 기한, 이달 5일까지 재연장

전국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 간의 쟁의조정 기한이 7월 5일까지로 추가 연장됐다.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조가 파업기한으로 내세운 9일 이전에 마지막 쟁의조정에 나섰으나 양측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기한을 5일로 연장하는 데만 합의했다. 당초 쟁의조정 기한이었던 지난달 26일에서 이날로 연장한 데 이어 두 번째 연장한 것이다.

노조는 5일에도 사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9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5일 마지막 교섭에도 실패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대한민국 우정사업 61년의 최초 파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편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우편물을 받고 배부하는 기능을 하는 전국 24개 우편집중국 소속 비정규직 4100명도 차별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는 명목으로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양측 의견차 좁히지 못해 = 우정노조

우정노조, 인력 충원·주5일 근무 등 근무환경 개선 요구에
우본측 수용 거부... 의견 못좁히고 조정기한 연장에만 합의
비정규직 4000여명 파업 동참... 우본 “파업 여파 최소화”

가 내부적 파업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격무’다. 우정노조는 공무원 2만여 명과 비공무원 7000여 명으로 구성된 우정사업본부 내 최대 노조다. 교섭대표 노조 권한을 갖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유일한 공무원 노조다.

올 들어 집배원들의 과로사 잇따르자 노조는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 과로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집배원은 모두 9명이다. 기수철 우정노조 조사국장은 “지난해 집배원 25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도 9명이 과로로 숨지는 등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겸배’(兼配)가 꼽힌다. 집배원 1명이 휴가를 가면 다른

집배원의 물량이 최대 20%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휴가를 쓸 수 없는 구조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집배원들의 근로환경도 악화일로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지난해 우본 노사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성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집배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나타났다. 국내 임금노동자 평균(2052시간)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63시간)보다 월등히 많다. 노조 관계자는 “물량이 집중되는 설과 추석을 앞둔 시기의 노동시간은 주당 68~70시간에 이른다”며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일과시간에 업무를 끝내기 위해 오히려 노동 강도가

세졌다”고 강조했다.

우정노조는 해결 방안으로 △집배원 증원 △주 52시간제에 따른 임금 보전 △토요일 휴무 등을 요구했지만 우정본부 측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정본부는 오히려 집배원 수가 2015년 1만8562명에서 올해 4월 기준 2만256명으로 9.1% 늘어났다는 집계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정본부는 집배원 1인당 배달물량도 1005통에서 869통으로 13.5%, 연간 노동시간은 2488시간에서 2403시간으로 3.4% 각각 줄었다고 집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당장은 증원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우본 자체적으로 임금이나 수당을 올려주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택배대란 현실화되나...우본 “여파 최소화 할 것” =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당장 9일부터 전국적 규모의 물류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전체 택배 시장에서 우체국 택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8% 정도다. 하지만 비중이 낮아도 민간 택배회

사가 꺼리는 농어촌, 도서 지역 등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우정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간 지 2~3일 만에 물류 흐름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정노조는 집중국의 약 63%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파업을 하더라도 여파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유지 인력과 위탁 택배기사 등을 통해 물류 배송에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게 최우선 방안이다. 우정노조 노조원 3만여 명 중 필수 유지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1만4000명가량이다. 다만 필수 유지 인원이라도 할당된 물량과 관계없이 정시퇴근을 한다. 또 자영업자로 등록된 위탁 택배기사도 고용하고 있다. 우본 관계자는 “위탁 택배기사는 조원인이 아닌 만큼 파업과 관계없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필수 유지 인력도 있기 때문에 물류배송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KT, 4K 무선 VR 서비스 ‘슈퍼VR’ 출시

초고화질 영화·VR게임 등
1만여편 실감형 콘텐츠 제공
“5G 실감미디어 선도하겠다”

KT가 5G ‘실감 미디어’ 시대를 맞아 4K 무선 VR서비스를 선보인다.

1일 KT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KT스퀘어에서 4K 무선 VR 서비스 ‘KT 슈퍼VR’ 출시 기자설명회를 열어 실감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KT는 2014년 홀로그램 전용극장 ‘K라이브’를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해 왔다. 2016년에는 프로야구VR 생중계, 음악 VR 서비스, U-20월드컵 5G 기반 VR생중계 등 온라인 VR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지난해에는 도심형 VR 테마파크 ‘브라이트’를 열어 오프라인 VR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차세대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VR, AR 등에 기반한 실감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해 앞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다.

KT는 지난해 11월 선보였던 기가라이브VR의 단말 사양을 업그레이드하고 콘텐츠라인업을 강화해 ‘슈퍼VR’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슈퍼VR는 피코(PICO)의 G2 단말을 사용했으며, 기존 기가라이브TV 대비 고성능 4K 올인원 단말을 사용해 현실감 높은 VR 콘텐츠 경험



김훈배 KT 뉴미디어사업단장이 기자설명회에서 국내 최초 4K 무선 VR 서비스 ‘KT 슈퍼VR’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을 제공한다. 기존 3K 단말의 화소가 616ppi였지만 4K는 화소 수가 818ppi로 늘어 생생함이 더해졌다. 또 렌즈를 개선해 눈부심 현상을 줄였으며, 안경 착용자를 위해 ‘글라스 서포터’를 추가했다.

슈퍼VR는 1만여 편의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4K 초고화질 콘텐츠는 총 450여 편을 선보이고 스포츠, 슈팅, 공포, 리듬액션 등 다양한 장르의 VR게임 15종을 제공한다. VR게임은 매달 2개씩 콘텐츠를 추가할 계획이다. IMAX 영화관 수준의 영화 콘텐츠는 245편이 준비돼 있으며 매달 10편의 영화가 추가로 제공된다. 올레 tv 모바일 앱도 탑재해 100여 개의 실시간 채널과 18만여 편의 VOD도 함께 즐

길 수 있다.

KT는 VR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사와 제휴를 맺기도 했다. 영화 ‘기생충’을 제작한 바론손이엔에이의 관계사인 바론손과 협력해 ‘멀티엔딩 VR’ 콘텐츠를 선보였다. 또 VR 영화와 게임을 결합해 사용자의 선택(‘Yes’ or ‘No’ 등 선택지 제공)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신개념 서비스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아프리카TV와 협력한 e스포츠 멀티뷰 중계,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협력한 VR 전용 스타 콘텐츠, 이너테인먼트와 협력해 만든 아이돌 VR팬미팅 콘텐츠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도 강화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보이스피싱 악용 ‘속얹이’ 1억 포상금 내건 거래소

〈가상화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사기 급증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짜 사이트가 등장하고,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으로 탈취한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달아나는 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코빗은 이메일과 공지를 통해 박상근 대표의 사과 글을 전했다.

박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입금정지와 재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객님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코빗은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신한은행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빗은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돼, 원화 입금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거래소 내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가상화폐 시세가 다른 거래소보다 눈에 띄게 낮게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7분께 비트코인은 코빗에서 1269만 원에 거래됐지만, 코인원에선 1376만 원에 거래됐다. 다른 거래소보다 8%나 낮게 거래되는 셈이다. 특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거래소 중 거래량이 4위에서 5위로 하락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한 금융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원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사용자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문제로 두드렸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사기 수법으로 탈취한 현금을 아르바이트 직원 통장을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소로 입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바꾼 후 전송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이가 사기범의 현금을 세탁해주는 데 이용당하는 것이다.

피싱사이트도 사기 수법에 이용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달부터 구글 검색창에서 ‘upbit’로 검색 시 피싱사이트가 노출된다고 중요 공지사항을 띄우고 있다. 피싱사이트는 화면상 업비트 사이트와 유사해 보이도록 사기범이 꾸민

가짜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서 접속하기 위해 계정명과 아이디, 카카오톡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계정 정보가 탈취당할 위험이 있다.

각종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접속 시 첫 화면에 경고문을 내걸고 있다. 고팍스는 6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이스피싱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가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최대 1억 원을 포상금으로 내걸었다. 코인원도 피싱사이트와 가상화폐 거래 대행에 대한 경고문을 첫 화면에 띄웠다.

김우람 기자 hura@

AI스피커 판매량 1년 새 2배 경증

과기부 4차 산업혁명 지표 발표
IoT서비스 사입자 33% 늘어

최근 1년간 인공지능 스피커 판매량이 2배 넘게 늘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조건인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가입 수도 전년 대비 3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인공지능(AI) 스피커, 드론·자율주행차, 핀테크 사업체, 스마트 공장 등 분야별 4차 산업혁

명 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2017년 11월 수립·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추진 상황을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관심 있을 만한 지표로 선정·조사한 것이다.

우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에서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 판매된 인공지능(AI) 스피커 대수는 412만대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의 전제조건이자 초연결 사회의 척도가

되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가입 수도 1865만 개로 전년 대비 33.2% 증가했다.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6월 10일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5G 등 빠르게 진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서비스하는 10기가 인터넷망 전국 인터넷 가능 지역은 6.86%로 나타났다.

지능화 기술 분야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발·개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오픈 API) 이용 수는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1200만 건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7배 늘어났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 ‘파격’ 계산원도 ‘점장 승진길’ 열렸다

1만4283명 ‘선임’ 발령하며

임직원 정규직 비중 99%

임금·복지·승진 차별 철폐

대졸 공채와 동일한 대우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이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꺼안기에 나섰다. 특히 홈플러스의 이번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대졸 공채와 같이 승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조치란 평가다.

홈플러스는 무기계약직 사원 1만4283명을 정규직으로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홈플러스 전체 임직원 중 약 62%에 달하는 인원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스토어(주), 홈플러스홀딩스(주) 등 홈플러스의 전체 임직원 2만3000여명 중 정규직 비중은 99%(2만2900명)를 기록하게 됐다. 비정규직(단기계약직) 근로자는 불과 1%(228명)만 남았다.

임일순 사장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만4283명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가족 모두에게 뜻깊은 일”이라며 “지난 22년간 함께 회사를 일궈온 임직원들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 그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것은 홈플러스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임과 동시에 회사의 미래를 견고하게 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규직 전환은 별도의 자회사 설립이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으로 발령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홈플러스는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직급인 ‘사원’ 1만4283명을 전원 ‘선임’으로 발령냈는데, 이 같은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은 국내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홈플러스가 1일부로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 1만42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직급인 ‘선임’으로 발령받은 강성태(31) 홈플러스 목동점 선임이 홈플러스 스페셜 목동점에서 축산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또한 승진에서도 기존 관리직 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점은 파격적이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은 기존 정규직의 직급 체계와 승진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선임으로 5년간 근무하면 주임으로 직급이 상승되고, 4년 후에는 대리, 그 이후에는 근무 평가와 근무 연수에 따라 과장, 차장, 부장 등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됐다.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이 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는 POS 작업을 주로 하는 계산원 등과 대졸 공채 직원 등 관리직을 구분하던 대형마트 업계에서 유례없는 조치다. 대형마트들은 통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나눠 발표한다. 이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는 관리직과 무기계약직 등이 포함되고, ‘기간제 근로자’에는 단순 아르바이트 등이 속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근거로 정규직 100%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전체 2만618명의 직원 100%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발표했다. 이중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미만을 일하는 단기간 근로자는 414명이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없다. 계산원들은 회사 측에서 정규직으로 주장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속한다. 대신 내부적으로는 대졸 공채 등 관리 직원과는 다른 직군에 속해 승진 등에 제약이 뒤따랐다. 이 영향으로 여성 직원의 연평균 급여는 2700만 원으로 남성 직원(5100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롯데마트의 경우에도 작년 전체 1만3368명의 직원 중 ‘기간제 근로자’는 7명에 불과하다. 표면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100%에 육박하지만 이들 중 단시간 근로자는 총 8735명으로 전체의 65.3%에 해당한다. 특히 남자 직원(3803명) 중 단시간 근로자(376명)는 9.9%에 불과하지만, 여자 직원(9558명) 중 단시간 근로자(8359명)는 87%에 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캐시 업무를 맡고 있다. 실질적으로 관리 직군과 구분돼 관리되는 셈이다. 또한 여성 직원의 연평균 급여는 3024만 원으로 남성 직원(5364만 원)의 56% 수준이다.

특히 홈플러스의 이번 조치는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파격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은 7.2%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임 사장이 인건비 부담보다는 인재 끌어안기를 통해 어려워진 경영 여건을 극복 하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제시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단맛 뛰어난 ‘워싱턴 체리’ 맛보세요

신세계백화점이 2일 체리데이를 맞아 스위트 체리의 대표 산지인 워싱턴주에서 생산한 체리를 신세계백화점 전 점 지하 슈퍼마켓에서 7월 한 달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워싱턴주의 체리는 캘리포니아 산지 체리보다 고지대에서 재배돼 신맛이 적고 단맛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14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앱 쿠폰 소지 고객에 한해 체리 한 박을 1만5800원(700g 기준·정상가 1만7800원)에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이 2일 체리데이를 맞아 스위트 체리의 대표 산지인 워싱턴주에서 생산한 체리를 신세계백화점 전 점 지하 슈퍼마켓에서 7월 한 달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워싱턴주의 체리는 캘리포니아 산지 체리보다 고지대에서 재배돼 신맛이 적고 단맛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14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앱 쿠폰 소지 고객에 한해 체리 한 박을 1만5800원(700g 기준·정상가 1만7800원)에 판매한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간편결제 시장’ 사활 건 이커머스

작년 결제액 80兆 2년 새 3배↑

11번가 ‘SK페이’ 등 잇단 도입

이커머스 업체가 ‘OO페이’로 불리는 자체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경쟁적으로 제휴사를 늘리고 있다. 간편결제시스템은 해당 이커머스에서 복잡한 입력과 정 없이 빠른 결제가 가능한 데다 충성고객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간편결제의 빠른 성장도 업계의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4월 금융감독원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의 전체 결제금액은 80조1453억 원으로 2년 만에 3배가량 성장했다.

11번가는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멤버십 할인과 포인트 적립·사용이 가능한 복합 간편결제 서비스 ‘SK페이(SK pay)’를 론칭한다고 1일 밝혔다.

‘SK페이’는 11번가의 대표 간편결제 서비스 ‘11페이’와 휴대폰결제로 오프라인 3만5000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T페이’를 통합한 서비스로, 4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신세계의 SSG페이도 론칭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 중이다. 2015년 7월 첫선을 보인 SSG페이는 신세계 온·오프라인 계열사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앱 다운로드 방식으로 웹방식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75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SSG페이 결제 비중은 올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증가했다.

이베이코리아가 2016년 내놓은 ‘스마일페이’는 금감원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에서 이용금액 기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쿠팡은 2015년 12월 론칭한 로켓페이를 최근 쿠팡이로 변경했다. 로켓배송의 높은 인기로 쿠팡은 쿠팡이 100만 회원을 확보했으며 쿠팡이 결제 매출만 수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빠르고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자사 페이 이용 시 적립금이나 프로모션을 통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삼양식품 ‘불닭’ 시리즈, 누적 매출 1兆 돌파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의 누적 매출이 출시 7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불닭 브랜드는 7년 동안 누적 판매량 18억 개를 돌파했으며, 이는 전 세계인 약 4명 중 1명이 맛본 셈이다.

2012년 4월 출시 이후 연간 75억 원에 불과했던 브랜드 매출은 2016년 1000억 원 브랜드로 도약했고 지난해에는 2825억 원으로 매출이 늘었다. 특히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2년 1억 원에 못 미쳤던 수출은 매년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7년 내수 판매를 앞질렀다.

18억 개 판매 세계인 4명 중 1명 맛봐



불닭 브랜드의 성공 요인으로는 ‘중독적인 매운맛’과 ‘다양한 확장 제품’이 꼽힌다. 1년간 매운 소스 2톤, 닭 1200마리를 투입해 만든 불닭볶음면은 중독성 강한 매운맛으로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알려졌다.

소셜네트워크에서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에 도전하는 ‘Fire noodle challenge’ 열풍이 불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현재 불닭 브랜드는 오리지널, 치즈, 까르보, 짬뽕이 등 총 9개의 제품으로 구성됐으며 최근에는 간편식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신비복숭아·자연산 민어회... “지금 아니면 못 먹어요”

대형마트, ‘희귀템’ 앞세워 소비자 잡는다

대형마트가 ‘희귀템’ 경쟁에 뛰어들었다. 갈수록 성장하는 이커머스에 생존 위협을 받은 대형마트는 연초부터 가격 경쟁에 열을 올린 데 이어 온·오프라인 통틀어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상품을 선보이며 소비자 발길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마트는 지역에서 주로 소비되는 ‘날개오징어’로 만든 물회를 10일까지 선보인다. 흔히 접하는 살오징어와 달리 날개오징어는 몸길이가 보통 60~70cm에 달하고 큰 것은 체중 20kg, 몸길이 1m를 훌쩍 넘는다. 동해안 연근해에서 가을·겨울철에 주로 잡히고 대부분 지역 횡집과 수산시장에서 소비돼 지역 소비성이 강하다.

날개오징어에 앞서 이마트는 ‘1%’의 희귀한 복숭아 ‘신비복숭아’를 3일까지 판매한다. 신비복숭아는 겉은 천도, 속은 백도인 복숭아로, 생산량이 1%가 채 되지 않고 6월 하순께부터 2주 동안 반짝 맛볼 수 있어 ‘1% 복숭아’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마트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흑한우도 3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제주 흑한우 사육두수는 1200마리가량으로



이마트는 ‘신비복숭아’를 3일까지 판매한다.

전국 한우 사육두수의 0.04%(일반 한우 총 300만 두)에 불과하고, 잘 자라지 않는 특성상 정육을 얻을 수 있는 수율 역시도 낮다.

이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워낙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 흔히 접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하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고 자연스레 화제가 된다”며 “이는 곧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상품 과잉, 천연기념물 한우 등 희귀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희귀템’은 매출 실적도 좋은 편이다. 신비복숭아의 경우 지난달 27~30일 매출이 3억 원으로, 이는 복숭아

전체 카테고리 매출의 35%에 달하는 수치다. 제주 흑한우 역시 27~30일 준비한 물량 1.6톤 가운데 80%인 1.3톤을 판매했다.

롯데마트도 희귀템 경쟁에 적극적이다.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빅마켓은 일반 횡집에서도 맛보기 어려운 ‘자연산 민어회’를 24일까지 판매한다. 구하기 어려운 자연산 민어인 만큼 롯데마트는 빅마켓 5개 점(금천, 신영동, 영등포, 도봉, 킨텍스)에서 점포별 하루 10팩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자연산 민어 매입을 위해 전남 신안해역의 수협 위판장과 3개월간 소통했고, 협의를 거쳐 당일 어획한 민어 원물을 점포로 직송하는 방식으로 이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 이마트의 경우 제주 흑한우를 확보하기 위해 서귀포 축협과 3개월간 사전 준비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눈에 띄는 희귀한 상품을 내놔 매장 방문 고객 수를 늘려야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자될 수 있는 희귀 상품을 선점하고 선보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공무원연금, 무책임한 기금 운용

前자금운용단장 독단적 지시에 ‘500억 원대 손실’ 의혹
보직해임 됐지만 위탁운용사 성과 평가 ‘불이익’ 가능성

78만 명 공무원 노후를 책임지는 공무원 연금의 무책임한 기금 운용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내부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자금운용단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연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 자금운용단장(CIO)의 일방적인 지시로 공무원 연금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올해 초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화 통화로 위탁운용사에 선물 매도와 환헤지, 비중 조절 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초 선물 매도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500억 원대의 기금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연금의 금융자산 운용 규모는 8조8267억 원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주식운용단장(CIO)이 내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자산운용 투자를 지시할 수 없다. 예외 조항은 있지만 대부분 금융자산투자위원회나 자산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위탁운용사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단장이 직접 전화해 환헤지나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여를 많이 했다”며 “정확히 손실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법 73조 금융자산운용지침에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 거래의 경우 규모와 투자 시기는 금융자산투자위원회에서 정한다”, “환헤지 비율과 허용 범위는 환헤지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대체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전 단장의 지시를 따른 위탁운용사의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은 위탁운용사의 수익률 등의 운용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추가 투자 및 환매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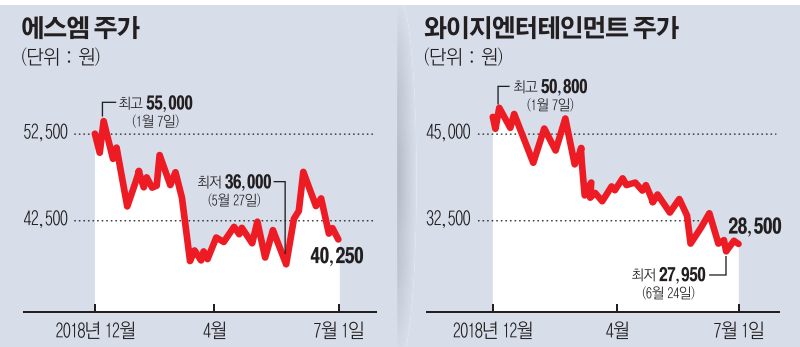
부를 결정한다.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공무원연금은 내부 종합감사와 기획재정부의 평가에서 자산운용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된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총 28번의 금융자산투자위원회의 중 17번을 참석하지 않은 위원도 있었지만 제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의무 사항인 위탁운용사 현장 실사를 하지 않거나 AMS(금융자산운용 시스템)를 이용한 전산 주문이 원칙인 주식매매를 전화로 한 일도 있었다. 이마저도 관련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거래 오류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내외 주식시장 급락 상황에서 보유펀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운용단장의 결재로 포트폴리오 비중 조정 등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며 “공단이 투자일임한 자산의 투자 손익은 공단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펀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시는 투자자로서의 타당한 운용 지시”라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날개 없이 추락하는 엔터株 실적 내세워 반등 성공할까

2분기 소속 가수 컴백 잇달아
해외 활동·음원 수익 기대도
하반기 분위기 반전 전망

버닝썬 사태 이후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엔터주가 하반기 실적 개선을 계기로 주가 반등에 성공할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엔터3사(SM, YG, JYP엔터테인먼트)는 1분기 시장 추정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SM은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한 영업이익 28억 원을 기록했고, YG엔터테인먼트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영업손실 23억 원을 거뒀다. JYP는 전년 동기 대비 314% 증가한 영업이익 58억 원을 기록했지만 시장 추정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

1분기 실적 부진과 함께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YG는 최근 불거진 마약 의혹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SM은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경영개선을 요구 받았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YG 주가는 연초 대비 -37.91% 하락한 상태다. SM(-21.23%)과 JYP(-20.65%) 역시 20%가 넘게 주가가 빠졌다. 시총으로 살펴보면 △SM(1조1764원→9418

억 원) △YG(8347억 원→5186억 원) △JYP(1조271억 원→8182억 원) 등 엔터3사가 7500억 원 넘게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2분기에는 소속 가수들의 컴백과 콘서트 등으로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엔터3사의 2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SM 114억 원(전년비 +14%) △YG 43억 원(+207.14%) △JYP 107억 원(+17.58%) 등이다.

하반기도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 증가와 유튜브 음원 수익 상승 영향으로 전망이 밝다. 증권업계는 실적 반등에 따라 주가 회복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남효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 음악 시장 환경이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으로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 증가로 하반기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주주 정책 강화로 섹터 신뢰도 회복하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빠른 유튜브 조회수 상승과 글로벌 투어로 인한 실적은 K팝 그룹들의 흥행을 증명하고 있다”며 “7월 엔터주의 투자 매력도는 높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G2 ‘휴전’에 숨돌린 증시… 문제는 실적

호실적 기업 종목 강세 전망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던 미중 무역분쟁이 일단 ‘휴전’에 돌입하면서 향후 증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증시 제반환경이 개선된 만큼 본격적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큰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8포인트(0.04%) 하락한 2129.74로 장을 마쳤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북미 관계 개선 기대감에도 증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이 이

미 시장에 일정 부분 반영된 상황인 데다 지식재산권, 강제 기술이전 등 난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이들 이슈가 기대감이 아닌 직접적 호재로 작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실적 호조세가 뚜렷한 기업 위주의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융정보 제공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올해 2분기 실적 추정치를 제시한 상장사 181곳 중 79곳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주로 유통, 화장품, 미디어, 디스플레이, 운송 등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 추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종목별로는 롯데쇼핑(217.9%), 와이지엔터(141.1%), 농심(141.1%), 코오롱글로벌(91.9%), 아프리카TV(57.3%), 롯데칠성(62.4%), 오리온(37.0%), 호텔신라(26.3%)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폭이 클 전망이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당초 예상과 달리 실적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경우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증시 전체 영업이익의 증감을 저점은 2분기, 반도체의 저점은 3분기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똑똑, 나기도 될까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인가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정책이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
1588-1940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
www.childfund.or.kr

바이오株, 회장님 한마디에 ‘흥역’

박동현 메지온 대표 “임상결과는 하나님 뜻” 주가 하락 부추겨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도 “신약 임상 목표치 도달 못해” 논란
전문가들 “기대감 아닌 실제 확보된 데이터 확인 후 투자해야”

바이오 업종이 대표이사 말 한마디에 흥역을 치르고 있다. 임상시험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직접 나섰지만,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부추긴 모양새가 됐다. 전문가들은 실제 확보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조언한다.

지난달 28일 박동현 메지온 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설명회를 열고, 유테나필 임상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날 유테나필 임상3상이 실패했다는 소문이 돌리면서 주가가 28% 급락한 상황이었다.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임상 현황을 설명한다는 소식에 불안한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물리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과거 메지온이 7월 초 유테나필 타라인데이터를 저널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보이겠다고 고지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주가가 급락한 게 아

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동현 대표가 본인의 불찰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데이터, 일정 발표 대신 “임상시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답을 반복해 주주들의 원성을 키웠다.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기업설명회가 시작된 3시부터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 23% 하락했다.

이에 지난날 30일 메지온은 회사 홈페이지에 주주서한을 올리면서 재차 해명에 나섰다. 27일에는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이 긴급 설명회에서 신약 ‘리보세라닙’의 임상시험 소식을 전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진 대표는 설명회에서 리보세라닙 3상 타라인 결과에 대해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전체 생존기간(OS)이 내부 임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신청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발언하면서

임상 실패 논란으로 이어졌다. 주가도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4월 이성구 안트로젠 대표의 긴급 기업설명회가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당뇨병성족부궤양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은 미국과 한국에서 환자 등록을 시작하지 못해 일정이 수개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랐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연일 급락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바이오 쇼크’를 계기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 임상시험 기대치가 아닌 데이터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임상 3상 데이터 공개 시점을 연기하고,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자금조달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 내 기업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이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실제 임상 결과에 기반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이정희 기자 ljh@
노우리 기자 we1228@

‘50억 유증’ 코이즈… 회생 전기 될까

주주대상… 1차 발행가액 1450원
최대주주도 지분 절반 참여 예정

코이즈가 7년 만에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에 나선 가운데 조달 자금을 바탕으로 회생의 전기를 마련할지 아목이 쏠린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이즈는 지난달 50억7500만 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최근 1차 예정 발행가액이 1450원으로 정해졌으며, 29일 확정된다. 회사 측은 조달 자금으로 복합·단일필름 관련 원재료와 부재료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다.

코이즈는 LCD BLU용 광학필름 코팅과 도광판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광학 소재 전문기업으로 2012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 그해 최고 매출인 355억 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거듭했다. 매년 40억~7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수익성도 좋았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실적 내림세가 시작됐다. 매출은 2013년 241억 원으로 줄었고 1억 원의 적자가 났다. 2016년 다시 300억 원대 매출을 회복하면서 나아지는 듯했지만 2017~2018년 LCD 업황 악화에 작년 191억 원으로 줄었다. 영업손실 규모는 최근 2년간 70억 원대로 불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61억 원으로 작년보다 56.7% 늘었지만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를 지속했다. 무엇보다 매출 감

코이즈 실적 (단위: 억 원, %, 2019년은 1분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	314	264	191	61
영업이익	8	-75	-74	-19
순이익	15	-95	-80	-17
부채비율	84.3	102.6	199.4	231.7

소에 따른 고정비, 즉 매출원가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라고 할 만한 엘엠에스(1.0%)나 미래나노텍(8.9%)과 비교하면 연평균 매출 감소율이 15.0%에 달할 정도로 컸다. 반면 최근 3년간 평균 원가율은 102.6%로 엘엠에스(68.3%), 상보(91.2%), 미래나노텍(82.8%)보다 높다. 물건을 팔수록 손해라는 의미다. 회사는 복합필름의 수출 개선과 사업 확대에 실적 만회를 꾀하고 있다.

수익 없는 사업이 이어지다 보니 회사는 외부 차입에 의존해 경영을 이어갔고 재무 안정성 역시 악화됐다. 부채비율은 2015~2017년 100% 안팎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99.4%로 뛰었고 올해 1분기에는 231.7%까지 높아졌다.

한편 이번 유증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조재형 사장 가족은 보유한 지분 대비 절반 수준에서 청약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조 사장 36.4%, 배우자 최연주 이사 13.0%, 자녀인 준호·윤우 씨가 각각 0.9%씩 총 51.3% 지분을 갖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금융계열사 정리 롯데, 캐피탈 매각 언제쯤?

年 1000억 순이익 ‘알짜회사’
롯데홀딩스에 처분 관측
연내 공개 매각 전망도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매각이 완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롯데캐피탈로 옮겨가고 있다.

1일 사모펀드(PEF)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캐피탈 매각 구조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2017년 10월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융계열사를 처분해야 한다. 이에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했으며 28일 롯데카드 잔여 지분까지 매각해 정리를 마쳤다.

또한 롯데캐피탈 지분 25.64%를 정리하기 위해 지난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다가 번복한 적이 있다.

업계에서는 우선 롯데가 캐피탈을 입찰하지 않고 일본 롯데홀딩스에 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롯데캐피탈은 업계 3~4위 업

체로 매년 10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알짜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캐피탈의 롯데지주 지분은 25.64%이며 호텔롯데가 39.37%로 최대주주다. 이에 호텔롯데에 매각하는 방안도 언급되지만 지배구조 개선에 따라 향후 호텔롯데가 상장하고 지주사에 합병하면 매각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시장성이 높으므로 연내로 공개 매각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롯데캐피탈은 카드나 손보와 달리 대주주 적극적사가 필요하지 않아 매각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앞서 보류한 매각 전이 다수의 원매자가 뛰어들며 흥행했다는 점도 재매각 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다.

최근 다수의 금융 M&A에 참여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우리금융 측은 롯데캐피탈 인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롯데캐피탈 재매각 추진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나 관심이 없으며 이미 (우리금융은) 캐피탈을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KYOBLO

교보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01262호

(2019.01.01 ~ 2019.12.31)

70th

지금 만나러 갑니다

교보증권

창립 70주년

로보서비스 무료이벤트

신용공여이자율 혜택이벤트

해외주식 담보대출 이자율 인하이벤트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인하이벤트

EVENT 01

로보서비스 무료 이벤트

대상 로보서비스(투자자의달인, 파토, 스톡봇) 이용 무료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교보증권 기존 및 신규고객

로보서비스 소개

1 투자의 달인

2 파토

3 스톡봇

교보증권 MTS(WIN.K) > 전월매출 > 로보/재무서비스에서 가입

EVENT 02

국내주식 신용공여 혜택 이벤트

대상 신용공여자를 연 0.9%, 담보대출이자율 연 0.5%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당사 최초 신규 및 휴면 고객에 비하면 계약개설 건

EVENT 03

해외주식 담보대출 인하 이벤트

대상 해외담보대출 연 0.1% 적용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이벤트 기간내 비대면 또는 은행면접 해설을 이행하여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한 고객(신규종합계좌에 한함)

EVENT 04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인하 이벤트

대상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미국 0.15%, 홍콩 0.2%, 중국 0.2% 적용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이벤트 수수료 적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이벤트 기간내 비대면 또는 은행면접 해설을 이행하여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한 고객(신규종합계좌에 한함)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2 본인 인증

3 주소 등 정보 입력

4 신분증 촬영

5 계좌 인증

6 신청완료

투자자 유의사항

교보증권은 금융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위험을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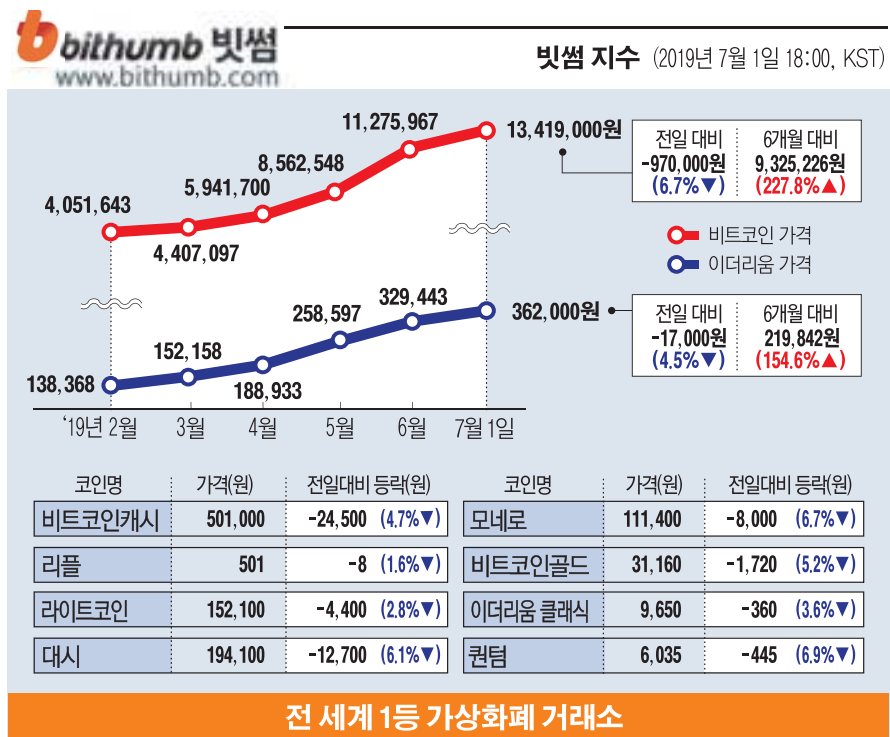
적용 일보비율은 미발 시 기한 내 추가 일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일부 상품에는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매매는 투자 전도, 거래일, 단위, 과세방법 등 국내 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간의 계약(간접투자)은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대시보드)에 주식매매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그 다음부터는 1개 적용, 주만매출변동 신규계좌만 해당) 주식 기본 매매수수료는 전 시장 0.3%비율(미세)이며 최소수수료는 미국 30USD, 홍콩 300HKD, 중국 100CNY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조건 및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해당 이벤트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44-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서비스 고객에게 맞는 투자정보는 수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도시 비껴간 광명... 집값 꿈틀

3기 신도시 발표 후 반등... 지난주 0.48% 올라
여의도역까지 7정거장 '신안산선' 개통도 호재로

지난해 하반기 급등 이후 가격이 빠지면 서 '거품설'까지 제기된 경기도 광명시 아 파트값이 최근 다시 꿈틀대고 있다. 5월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을 피하면서 공급 대란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교통 호재까 지 현실화하자 주택 매매 수요가 다시 불 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광명 시 일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인 한 공급 과잉 리스크를 피한 데다 서울 강 남권 아파트 시장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 자 일부 주택 수요자들이 '준강남권'인 이곳 부동산 매매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광명시 광명동 한 공인중개사는 "광명 지역 인근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 없 어 주택 수요 분산이라는 리스크를 피하 게 됐다"고 말했다. 광명시 주변에 대규모 신규 택지(신도시)가 조성되면 주택 수요 분산으로 주택시장이 경쟁력을 잃을 수밖 에 없는데, 이를 비껴나면서 베트타운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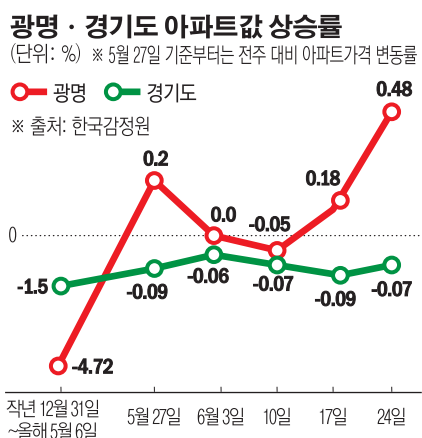
실제로 광명뉴타운 주변 아파트 매매가 격이 최근 들어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거품론'이 제기되던 수

준으로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 격)가 오른 상태다. 광명해모로이연 아파 트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초 6억 원 (16층)에 팔리며 지난해 말 기록한 고점 가격(20층)에 도달했다. 이 아파트 호가 는 현재 층수에 따라 6억~6억5000만 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 난달 24일 기준 광명시 아파트값은 전주보 다 0.48% 오르며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 들어 광명지역 아파트값은 3기 신도 시 2차 발표일인 5월 7일 전까지 경기도에 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경기도 전체 집값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5월 6일까 지 1.50% 내려갈 동안 광명 지역은 4.72% 추락한 것이다. 하지만 5월 하순부 터 이 같은 현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경 기 지역 평균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동안 광명은 5월 27일 0.20%로 전주 대비 반등 하더니 2주간 주춤했다가 0.18%, 0.48% 로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지난해 광명이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뜨 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강 남 접근성과 더불어 대형 교통 호재를 안



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교통 호 재가 현실화 속도를 높이면서 아파트값 상 승을 다시 부추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신안산선 복선전 철의 사업 착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실 세계획 승인서를 접수했다. 이르면 내달 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광명역에서 여의도역까지 7개 역만 거치면 돼 광명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좋아진다.

일직동 D공인 관계자는 "서울에 전세 살 면서 여의도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곳 아 파트 매입을 고려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 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무효표 4장에... 고척4구역 수주전 무산

불펜 기표 무효에 기준 논란
대우건설, 2표 부족해 부결

지난 주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 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면서 이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이 사업지에서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두고 맞붙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고척4 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지만 시공사 선정 기준 인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투표는 조합원 266명 중 절반 이상 인 246명이 투표에 참여해 대우건설이 126표, 현대엔지니어링이 120표를 얻는 등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조합은 대우건설이 받은 4표에 대해 '불펜으로 기 표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효 처리했다.

과반 득표를 위해선 124표를 얻어야 하 는데 대우가 얻은 4표가 무효 처리되며 결 과적으로 2표가 부족해 부결된 셈이다.

이에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도 각 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조합원 총회 사회자는 시공사 선정 투표지에 불펜이 기입된 것은 무효라고 주 장했지만 당일 두 회사가 기표소 입장 전 투



표 용지를 확인할 때 기표 용구 외에 불펜 등이 함께 표시된 용지도 유효표로 인정하 기로 합의했다는 게 대우건설의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배 포하고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로 한 4표를 포함하면 총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 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조합 이 이미 부결을 선언한 사안"이라며 "모든 건 조합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맞섰다.

앞서 이 현장은 대형건설사들이 시공권 을 놓고 맞붙으며 지나친 과열 양상이 벌 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고척4구역 재개발은 서울 구로구 고척 동 148번지 일대 4만1675㎡ 토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983가구를 짓고 이 중 835가구를 일반분양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는 1964억 원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건산研 “하반기에도 집값 떨어진다”

0.7% 하락 전망... 수도권 낙폭 줄 듯

올해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7%, 전세가격은 1.1%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1 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에 따르면 매매가격의 경우 하반기 동안 수도권 0.5%, 지방 0.9%, 전국 0.7% 내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 다.

수도권은 상반기보다 집값 하락폭이 둔

화할 것으로 점쳐졌다. 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대출을 통해 전셋값 하락폭을 극복하고 급매물을 거둬들일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의 경 우 수요 여력이 약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에 따른 가격 하방 압력이 더 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격은 준공이 계속됨에 따라 상반 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1.1% 내리며 연간 기준으로는 2.5%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 다. 이는 2004년(-5.8%) 이후 최대 낙폭 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밀린 분양 쏟아져 '분양 성수기' 된 7월

4만 가구 예정... 작년보다 138% ↑
HUG 분양가 통제에 일정 늦어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기존보다 높이기 어렵게 산정 기준을 변경 하면서 6월 분양예정 단지들이 절반 넘게 분양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 해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 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

어 이달 분양시장 물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5월에 조사한 6월 분양 예정 단지는 58개 단지, 총 4만 8240가구, 일반분양 3만5507가구였다. 이 중 실제 분양한 단지는 29개 단지, 총 2만 741가구, 일반분양 1만3578가구로 계획대 비 절반에도 못 미쳤다. 6월 분양 계획 단지 중 분양가 산정 문제가 불거진 '대미안 라 클래스'는 결국 후분양으로 선화했다.

직방이 7월 분양 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은 54개 단지 총 3만 9176가구 중 3만398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26개 단 지(총 2만2708가구)의 138%, 일반분양 물량(1만8267가구)의 151% 수준이다.

6월 분양 예정 단지들이 대거 7월로 분 양 일정을 늦추면서 전통적으로 분양 비수 기이던 7월 분양 예정 물량이 많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단,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의 분양가 산정 문제로 이달 분양 단지들 도 분양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초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편안하지 않다. 설득하기 많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뉴얼과 다르다면,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뉴얼 말고 실전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K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전 대뉴얼이자, 후속한 성장설계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발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적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재산과 구성원들의 명과 명절,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람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가치를 얻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한 권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원기의 열거를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함은 물론, 길이 있는 원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한다.

이정호 지음 / 230쪽 / 4800원 / 15.800원

999원 지음 / 230쪽 / 4800원 / 15.800원

박원순표 ‘민주주의꽃’ 진통 끝에 시의회 통과

부결 2주 만에 다시 표결

조례안 모두 본회의 통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안’이 재표결 끝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무기명 전자투표 진행’에 동의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찬성 60표, 반대 24표, 기권 6표를 얻었으며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찬성 60표, 반대 25표, 기권 3표로 모두 가결됐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서울시장 직속 기구로 설립하는 내용이다.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일할 공무원 자리를 만드는

내용, 시의회 조례 개정안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담당할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공무원, 각계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각종 정책을 기획·조정·의결하고 시민참여·숙의제 예산 편성 등에 참여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한 신규 사업 예산, 시민숙의예산은 기존 서울시 사업 중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는 예산이다. 두 예산 규모는 시민민주주의 확대에 따라 내년 2000억 원에서 2021년 6000억 원, 2022년 1조원대로 늘어난다.

이에 위원회 예산 편성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과 서울시가 자주 조직을 개편한다는 비판 등이 잇따랐고, 제287회 정례회 회기 중이던 지난달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논의 끝에 해당 안건을 다룰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다음날 공고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버스 주 52시간제 돌입... 일부 노선 폐지

1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버스정류장에 주 52시간 단축 근로 시행에 따른 노선 폐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300인 이상 버스사업장의 주 52시간 단축 근로가 시행된 이날 경기 지역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김포, 안양, 여주 등 3개 시만 노선 조정이 이뤄지는 등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장판·벽지 보수’ 약속 안지킨 부영주택, 18억 배상할 듯

재판부 “분양전환시 보수의무 불이행”

분양 계약 시 도배와 장판을 갈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영주택이 약 18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76명, 정모 씨 등 722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영은 1993년 ‘분양 계약할 때 실내 도배와 외부 도장을 해주겠다’며 속초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부영주택은 2009년 12월 부영으로부터 분할 대 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뒤 2016년경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이 씨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분양계약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이 씨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아파트 분양전환 시 실내 도배 및 외부 도장을 해주기로 했는데, 각 세대를 임대한 이후 현재까지 벽지·장판의 보수 및 외부 도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범법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각 140만~320만 원씩 총 17억9000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벽지 보수 및 외부 도장의 의무가 있고, 보수 완료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

해 장판 보수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전환 시 보수·수선 범위에 관해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실내 도배 및 외부 도장’으로 기재됐다. 벽지 및 장판의 보수주기에 대해서는 2006~2011년 갱신된 임대차계약에는 6년, 2012~2015년 갱신된 계약에는 10년으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보수·수선 범위를 ‘실내 도배 및 외부 도장’으로 하는 내용이 그대로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됐고, 그 이후 이를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 졸업후 5년 이내로 완화

서울시가 올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2019년 상반기 지원부터 사업지원 대상자를 기존 ‘대학생~졸업 후 2년 이내’에서 ‘대학생~

졸업 후 5년 이내’로 확대했다.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뿐만 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회초년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울청년 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대학생(재학생·휴학생)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등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초본, 졸업증명서 등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0일까지 제출해야

국세청, 190만 사업자에 안내문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대상인 사업자 190

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1년에서 6개

월로 줄이는 제도(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달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급여액 등을 적은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내야 한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재미

공감

행복

BR

AVO

My Life

정기구독 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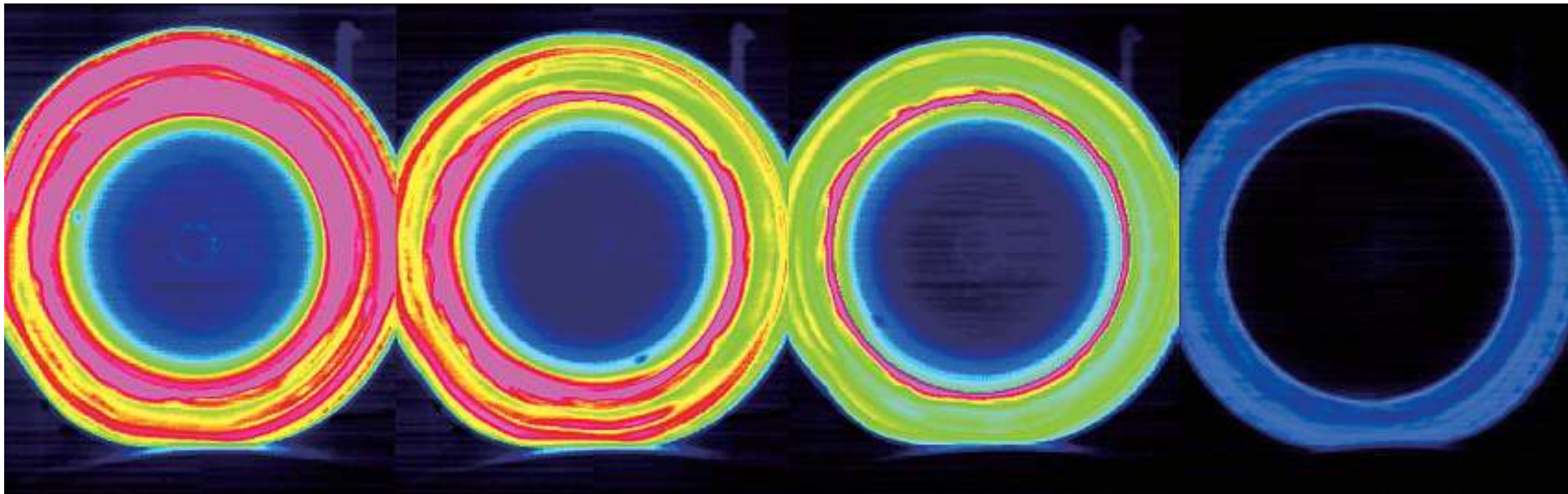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타이어 살 때 ‘신선도’ 따져야 한다



타이어 제조사들은 더운 여름철 타이어 공기압을 기준치보다 약 10% 더 주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뜨거운 열 탓에 접착(복구)과 비접착(변형)이 반복될수록 타이어 내부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표면이 일그러지는, 이른바 ‘스탠딩 웨이브(standing wave)’ 현상에 따른 타이어 파손을 막기 위해서다. 사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타이어 열변형 현상 모습. 사진제공 한국타이어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트**

타이어 오해와 진실

매서운 겨울과 뜨거운 여름이 공존하는 우리나라는 주행 여건이 혹독하다.

타이어 역시 원칙적으로 계절에 맞는 타이어를 때맞춰 바꿔야 한다. 자동차 성능의 대부분을 파워트레인이 결정하지만 극단적 상황에서는 타이어의 성능이 당신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는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자

◇여름철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더 넣어야 한다? = 맞는 말이다. 언뜻 뜨거운 열기 탓에 공기가 팽창되는 만큼, 공기압을 낮춰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다. 더운 여름, 특히 장거리 고속주행을 앞두고 있다면 공기압을 기준치보다 10% 이상 더 채워야 한다.

여름철 뜨거운 지열 탓에 후끈 달아오른 타이어는 엄청난 회전을 반복하면서 타이어 안팎의 온도가 상승한다. 지면과 접촉한 타이어는 지면과 떨어지면서 타이어 표면이 물결처럼 일그러진다. 이른바 스탠딩 웨이브(standing wave) 현상이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변형과 복원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타이어가 파손되는 것. 이를 막기 위해서 공기압을 팽팽하게 유지해야 한다.

◇타이어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 타

제조사 2~3년 재고 폐기

오래 묵히면 접지·내구성 약화

타이어 옆면 ‘DOT 코드’ 체크

여름철엔 공기압 높여야

고열 ‘표면 일그러짐 현상’ 예방

고속주행 시 10% 이상 더 채워

이어도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타이어는 고무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화되기 시작한다. 말랑말랑한 고무가 딱딱하게 경화되면서 승차감은 물론 접지력과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타이어 제조사가 2년 또는 3년 이상 된 재고 타이어를 일괄 폐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유통기한은 제조일자를 확인하면 된다. 타이어 옆면에 새겨져 있는 ‘DOT 코드’ 네 자리 숫자가 생산일자다.

예컨대 ‘2419’라고 쓰여져 있다면 앞자리 숫자 2개가 생산 주(24번째 주)를 의미하고 뒷자리 숫자 2개는 생산 연도(2019년)다. 지금 당장 당신 차의 타이어

가 언제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길.

◇방탄 타이어도 있다(?) = 있다. 그 런데 이름과 달리 총알을 막아내지는 못한다.

방탄 자동차도 같은 목적이지만 방탄 타이어 역시 총알을 막기보다 최초의 충격을 막아내고 재빨리 현장을 벗어나는 게 가장 큰 존재 이유다.

흔히 장갑차로 불리는 군용차, 또는 방탄 승용차의 경우 총을 맞아도 일정 속도(보통 시속 70km 안팎)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데 그것도 이런 목적을 지녔다.

그렇다면 고무로 된 타이어가 어떻게 충알을 맞고도 더 달릴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타이어 안에는 공기가 약 70%를 차지한다. 나머지 30%는 공기가 아닌, 말랑말랑한 고무로 채워져 있다. 충알을 맞았어도 이 고무로 버티면서 일정 속도를 유지한다. “승차감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 충알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일반 런플랫 타이어도 같은 원리 인가요 = 펑크가 나지 않는 타이어로 알려진 런플랫 타이어도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방식은 다르다.

런플랫 타이어는 안쪽에 공기가 모두 빠져도 일정 속도를 낼 수 있다. 갑작스런 펑크 탓에 무게중심이 흐트러지고, 이로 인한 2차 사고를 막는 게 목적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타이어는 지면과 맞닿는 면이 트레드, 양옆을 지탱하는 부분을 ‘사이드월’이라고 부른다. 런플랫 타이어

는 이 사이드 월이 무척 단단하고 두껍다.

그래서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도 사이드 월이 차 무게의 4분의 1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꽤 안전하고 신박한 기술이지만 사이드 월이 단단하다 보니 무게가 늘어나고 연비도 나빠다. 나아가 일반 타이어의 말랑말랑함을 기대할 수 없어 일반 주행 때에도 승차감이 꽤 떨어진다.

◇그럼 울퉁불퉁 산악용 타이어가 좋겠군요? = 노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네비퀴 굴림 SUV용 타이어는 일반 승용차 타이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거친 노면에서 효과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로 바꿔 장착했다면 온로드에서는 주의 운전해야 한다. 오프로드용 타이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노면 상황에 따라 온로드 성향까지 아우른 AT타이어와 극단적인 험로 주행을 위한 MT 타이어다.

MT 타이어는 지면과 맞닿는 면이 울퉁불퉁해 한눈에도 과격하게 보인다.

진흙길에서는 울퉁불퉁 트레드 사이까지 진흙이 스며들면서 그 자체가 접지면적이 된다. 진흙과 맞닿는 면적을 모두 펼쳐 놓는다면 엄청난 면적으로 늘어난다. 접지력은 접지면적과 비례하므로 맞닿는 면적이 늘어나니 험로와 진흙길에서 접지력이 크게 향상된다. 반면 온로드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실제 노면과 맞닿는 면적은 의외로 좁다. 접지면적이 적으니 접지력도 그만큼 떨어져 온로드에서는 미끄러지기 십상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1 타이어 제조일자(DOT 코드)는 옆면에 자리한 네 자리 숫자다. 앞쪽 두 자리는 생산 주, 뒤쪽 두 자리는 생산 연도를 뜻한다. ‘0819’는 2019년 8번째 주에 생산된 제품. 2 방탄 타이어를 단 차량. 3 런플랫 타이어는 타이어 옆면, 즉 사이드월이 탄탄해 펑크가 나도 주저앉지 않는다.

이투데이DB·뉴스프레스UK·한국타이어 제공

평생 펑크 안 나는 타이어 2024년 나온다



미쉐린과 GM이 상용화를 위해 공동 개발 중인 ‘에어리스 타이어’. 펑크가 나지 않고 못이 박히면 박힌 채로 내달린다. 노면 요철에 따른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 승차감이 월등하다.

뉴스프레스UK 캡처

미쉐린 에어리스 타이어 공개
구멍 송송 뚫린 철심 고무 구조
고속주행 약점 극복...GM 제휴

못을 밟거나 옆면이 찢어져 조기에 폐기되는 타이어가 한 해 2억 개에 달한다.

전 세계 완성차 시장이 8000만 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차 1대당 1년에 2개 이상의 타이어를 마모가 아닌, 파손에 의해 교체한다는 뜻이다.

고무 타이어의 역사는 1844년부터 시작됐다. 자동차의 발명보다 약 50년이 앞선 기술이었다. 그러나 아침에 눈뜨면 새로운 자동차 기술이 넘쳐나는 것과 달

리, 동그란 모양과 검정색의 타이어는 100년 넘게 그 모양과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근 미쉐린은 평생 펑크가 나지 않는 타이어, 이른바 공기를 주입하지 않아도 되는 에어리스(airless) 타이어를 공개했다.

새 모델은 사진처럼 타이어 옆면이 송송 뚫린 구조다. 공기가 들어차야 할 부분은 철심이 들어찬 고무로 채웠다.

에어리스 타이어는 못이 박혀도 계속 달릴 수 있다. 나아가 타이어 하나에 들어가는 고무의 양도 줄어 환경 보전에도 힘을 보탠다. 앞서 농기계에 에어리스 타이어가 보급됐으나, 일반 자동차에는 도입이 불가능했다. 고속 주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반면 미쉐린은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고 GM과 5년 내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공기가 없다 보니 전자식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 시스템도 필요 없다. 나아가 승차감은 일반 공기주입 타이어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

파손이 없는 타이어의 개발은 교체 타이어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미쉐린, 나아가 타이어 제조사 입장에서 반길 일은 아니다. ‘자기 파괴적인 제품’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미쉐린 측은 “교체 주기가 늘어나도 고객의 안전 등 장기적 요소를 고려하면 결국엔 회사에 이익”이라는 착한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5년만 기다리시라. 평생 펑크 안 나는 타이어를 만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마르지 않는 5G 데이터

KT 5G, 완전 무제한 데이터시대를 열다

5G 데이터가 기간제한 없이 완전 무제한
데이터 로밍도 원하는 대로

kt 5G 슈퍼플랜

【 베이직 / 스페셜 요금제 】

해외 특/메신저 무제한 (최대 100Kbps)

국내 완전무제한

【 프리미엄 요금제 】

해외 무제한 (최대 3Mbps)

국내 완전무제한

※ 국내 완전 무제한: 스마트 기기 / 테더링은 별도 제공 (초과 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이용 가능)
※ 해외 무제한: 베이직/스페셜 최대 100Kbps, 프리미엄 최대 3Mbps 속도로 데이터 로밍 이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당신의 초능력 **kt 5G**

“평가사, 자본시장 지키는 한 축 ‘신뢰·공정·합리성’ 세 가지 덕목”

신동승 한국펀드평가 대표

국내 연기금 70% 이상 평가 불특정다수 대상의 공모펀드 관리 소홀 모럴해저드 경계해야

평가의 사전적 정의는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합’이다. 대상의 판단을 위해서는 신뢰와 공정,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 래야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연기금의 펀드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펀드평가 신동승<사진> 대표를 지난달 28일 만났다.

광화문 한복판에 위치한 한국펀드평가는 2003년 한국자산평가의 펀드평가사업부에서 2008년 분사해 설립됐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주택도시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국내 연기금의 70% 이상을 평가하고 있다. 신 대표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근무하다 한국자산평가를 설립, 현재는 펀드평가사 대표직을 맡고 있다.

신동승 대표는 “자본시장에 꼭 필요한 회사는 펀드평가, 채권평가, 사후관리회사 등 평가사”라며 “자본시장이 있는 한 영속적으로 이어질 좋은 회사를 만들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펀드평가사의 업무는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대한 평가”라



며 “평가사의 덕목은 신뢰와 공정, 합리성”이라고 설명했다.

13년 업력의 한국펀드평가는 비교적 자유로운 사내 문화로 유명하다. 신 대표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과의 소통과 자율성”이라며 “사무실이 직원들의 놀이터가 되길 바라는 데, 즐겁게 일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미소를 지었다. 한국펀드평가는 올해 2월부터 탄력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현재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운용 규모는 계속 커지

고 있다”며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수익률을 많이 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전통적 방식이 채권과 주식이었다면 지금은 대체투자, 파생상품, 해외투자, 부동산 관련 등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잘게 보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 소수가 많이 가져가 다수가 힘들어지는 구조가 구축됐다”면서 “이럴수록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고 조화롭게 분배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그는 “불특정 다수가 공모펀드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이라며 “판매사 입장에서 불특정 다수가 가입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도 괜찮겠지’라는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또 수입이 많지 않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으로 공모펀드에 대한 불신이 발생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판매사들은 고객의 자산을 잘 운용하는 선의의 관리 의무를 충족하고, 운용사 선정에도 신경 쓰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입자들에게 좋은 수익률을 계속 낼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있는지, 고객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류현진,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선발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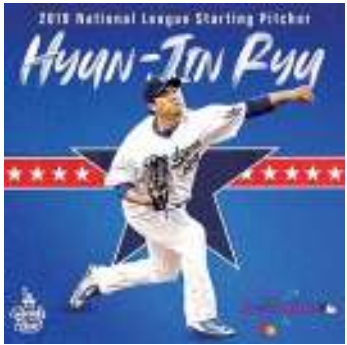
NL 사령탑 맡은 로버츠 감독 ‘낙점’…한국 선수 최초

류현진(32·LA 다저스)이 한국 선수 최초로 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낙점됐다.

내셔널리그올스타 사령탑인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은 1일(한국시간) “류현진이 올스타전의 선발 투수로 등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LA 다저스 구단도 공식 인스타그램에 ‘2019 MLB 올스타전’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는 류현진이라며 이를 공식화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로써 류현진은 2001년 박찬호(당시 LA 다저스), 2002년 김병현(당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2018년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에 이어 한국인 선수 네 번째로 ‘MLB 올스타전’ 무대를 밟게 됐다. 또한 올스타전 선발 등판으로는 한국 최초의 선수가 됐다.

류현진은 “올스타전 선발로 등판하는 건 엄청난 영광”이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전반기를 보냈다. 행운도 따랐고 내 기량도 도움이 됐다. 팀 동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류현진이 선발 등판하는 ‘2019 MLB 올스타전’은 10일 오전 8시 30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다. 이재영 기자 lly0403@

박성현, LPGA 아칸소 챔피언십 우승…세계랭킹 1위 탈환

박성현(26·사진)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성현은 1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 피너클컨트리클럽(파71·6106야



이날 우승으로 박성현은 세계 랭킹 1위 자리도 탈환했다. 올해 4월 고진영(24)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이후 3개월 만이다.

박성현은 경기를 마친 후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가 될 듯 말 듯 그렇게 풀렸다”라며 “조반에 기회가 많았지만, 살리지 못해 아쉬웠는데 캐디와 ‘아직 홀이 많이 남았으니 편하게 치자’고 이야기했다”라고 경기를 돌아봤다. 이어 “다시 1위가 되면 순위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1위가 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인사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조세정책과장 조만희 △공공정책총괄과장 정항우 △국세금융과장 유병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정보 △김승범 공공주택본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임윌시 공공주택본부 공공택지관리과장

◆통계청 ◇과장급 인사 △동북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송일규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정보 △관측기반과장 나득근 △기후과학과장 김남옥 ◇3급 승진 △대구지방기상청장 전준환

◆문화재청 ◇고위공무원 승진 △공능유적본부장 나명하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이갑배 △안전기준과장 도종필 △국제협력과장 이종희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방현기 △정책총괄과 조동주 △천연기념물과 이달희

◆경찰청 ◇치안정감 승진·정보 △경찰대학장 이준섭(승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용표 △부산지방경찰청장 김창룡(승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배용주(승진) ◇치안감 승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이문수 △ 수사부장 이명고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 김남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진교훈 △ 교통지도부장 진정무 △ 생활안전부장 이영삼 △경찰청 수사기획관 이규문

◆국민건강보험공단 ◇1급 정보 △인력지원실장 홍무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김선옥 △재정관리실장 홍영삼 △홍보실장 김영옥 △비서실장 김훈택 △빅데이터실장 안병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장 이영신 △종로지사장 정운균 △중구지사장 이경선 △강북지사장 신동호 △강서지사장 양인성 △구로지사장 정희자 △대구중부지사장 김진억 △안동지사장 박득수 △대전중부지사장 류호영 △광명지사장 조해근 △고양일산지사장 정흥기 ◇1급 승진 △건강강화기요양업무협력단장 한성욱 △전사 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추진반장 서철호 △성북지사장 김미경 △도봉지사장 전두현 △춘천지사장 권관중 △부산동래지사장 서욱임 △대구북부지사장 이해철 △경주지사장 김은호 △구미지사장 박용규 △군산지사장 윤정욱 △의산지사장 김정구 △고양 덕양지사장 양원열 △울산남부지사장 황용화 △포항 남부지사장 정경호 △제주시지사 김희웅 △청주시부지사장 유해경 △파주시지사 김인희

◆국민체육진흥공단 ◇실·팀장급 [공단본부] △경영혁신본부 혁신성과실장 최우녕 △ 총무인사실장 김성훈 △ 혁신성장팀 변성현 △ 정보기획팀장 정라온 △ 정보보안팀장 정수한 △ 공경문화팀장 이민재 △기금사업본부 스포츠산업실장 이상철 △ 자금운용팀장 김운수 △ 체육진흥팀장 구승모 △ 가치센터팀(TF)장 김영호 △ 안전관리팀장 김호영 △ 안전점검팀장 하성수 △ 체육시설팀장 김홍규 △시설운영본부 건설관리실장 안형준 △ 기념사업팀장 박윤정 △ 공원경영팀장 장경설 △ 전시준비팀(TF)장 이종삼 △ 건설관리팀장 황원기 △ 영업팀장 이규석 △ 고객지원팀장 박정환 △ 제철골프장팀장 이재원 [경원경영총괄본부] △사업기획실

장 최규철 △건설화추진실장 오장수 △사업지원팀장 김정은 △재무회계팀장 최문경 △시설지원팀장 성제현 △경주운영본부 경륜경주실장 최종립 △ 경륜선수지원팀장 유철승 △ 경정운영팀장 박진현 △ 경정선수지원팀장 신현광 △ 정보지원팀장 정민화 △영양관리본부 사업서비스실장 정인권 △ 강남지점장 안경찬 △ 천안지점장 최윤희 △ 동대문지점장 차차남 △ 경륜서비스팀장 박재철 △ 산본지점장 박병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행정지원팀장 김정미 △스포츠과학팀장지원팀(TF)장 김태완

◆부산항만공사 ◇1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김경원 △항만운영실장 김기주

◆한국고용정보원 ◇팀장급 정보 △기획정보본부 안전관리팀장 임승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수석급 승진 △경영지원실 김중현 ◇책임급 승진 △정책기획실 기획팀 문상미 △정책기획실 예산팀 정진홍 △경영지원실 시설안전보안팀 구태우 △인증평가센터 시험평가팀 장현석 △인증평가센터 시험평가팀 이태희 △인증평가센터 시험평가팀 송민섭 △사업추진단 로봇보급사업팀 김현아 △사업추진단 글로벌확산팀 김규환

◆한국전문연구원 △대형광원경사업단장 황나래

◆한국뇌연구원 △연구전략실장 구자욱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승진 △상근이사 김준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직무대행 최재균

◆대한건설협회 ◇정보 △기획조정실장 김중근 △문화홍보실장 직무대리 김영권

◆신한생명 ◇정보 △본부장 직무대행 △ NewLife추진본부장 직무대행 조형열 △디지털ICT본부장 직무대행 겸 ICT금융개발팀장 김주홍 △부서장 △CPC기획팀장 이영재 △FC사업팀장 김도환 △제휴사업팀장 김병호 △제휴마케팅팀장 조동현 △ NewLife추진팀장 임현진 △경영기획팀장 이상원

◆중앙생명 ◇팀장 승진 △감사팀장 정선모 △FC 영업팀장 이인길

◆한화손해보험 ◇임원 정보 △경영관리팀장 권양훈 △기업영업4본부장 서지훈

◆하나금융투자 ◇상무대우 승진 △홀데일추진실장 설근수 △기업분석실장 김홍식 △창원지점장 배국환

◆DB금융투자 ◇보임 △인사팀장 김성수 △WM 전략파트장 민경준 △내부회계관리파트장 최문석 △준법감시파트장 정유진 △부산지점장 최창현 △정보 △신용분석팀장 김주수 △강남금융센터장 허성준

◆기움증권 ◇임원 정보 △구조조금융운본부 투자금융팀·인프라투자금융팀 담당임원 정동준 ◇팀장 신규 선임 △투자금융팀장 정상협 △인프라투자금융팀장 김중필

◆KIS채권평가 △신사업총괄본부장 기호삼(상무) △평가사업본부장 김미희 △금융컨설팅본부장 송영준(이상 이사) △대체투자1본부장 박병현 △대체투자2본부장 이진영(이상 부장)

◆현대중공업그룹 ◇부사장 승진 △현대건설기계 정준철 ◇전무 승진 △한국조선해양 운영철 ◇상무보 신규선임 △현대중공업 강성현 △현대중공업 박상훈 △현대중공업 김남식 △현대중공업 이동진 △현대글로벌서비스 임인호 △현대중공업지주 로보틱스본부

운대규 △한국조선해양 신상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엔터프라이즈 커머셜 사업본부 우미영 △파트너 및 SMC 사업본부 장흥국 ◇전무 △서비스 사업본부 김한호 ◇상무 △마케팅옴니채널사업 사업본부 유현경

◆BDO성도이현회계법인 ◇상무이사 영입 △감사본부 전상원 △재무자문본부 한현국 ◇전무이사 승진 △품질관리실장 박재영 △대구지사본부장 이동운 ◇상무이사 승진 △김지현 △김학현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지회장 △스리랑카 콜롬보 오지철 △바레인 김용백 △뉴욕 유대현 △탐과 신소영 △마이애미 스티브 서(이상 미국) △호주 멜버른 민재홍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나연 △UAE 두바이 정숙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김정태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정하웅 △라오스 비엔티엔 윤병인 △일본 후쿠오카 장성배 △베트남 하노이 정철우 △가나 아크라 김승철

◆동아미디어그룹 ◇동아일보 <편집국> (부장) △이명진 (부장) △사회 정영수 △스포츠 김중석 △문화 서정보 (파트장 부장급) △화상승출파트 이용규 (부장급) △편집부 박수일 이재일 △인전취재본부 차준호 △스포츠부 전문기자 이원홍 △문화부 전문기자 전승훈 △콘텐츠기획본부 (부장급) △비즈니스컬처팀 김상훈(출판국) (팀장 부국장급) △디지털플랫폼팀 김현미 (팀장 부장급) △콘텐츠비즈니스팀 김형우 △주간 동아팀 정위웅 △출판사진팀 박해운 (부국장급) △출판국 허문병 (부장급) △단행본파트 이상수 △마케팅팀 김상겸 △미래전략연구소 (부국장급) △소장 김남국 △미디어연구소 (부장급) △심의연구팀 송진홍 △마케팅본부 (국장급) △본부장 전종현 (부장급) △부산경남팀 유영은 △지방사부팀 박상현 △경영지원국 △국장 강승호 △채널A (부국장급) △콘텐츠 사업본부장 김백철 △보도본부 (차장 부장급) △보도제작부 박광민 이영훈 하태원 △편집부 전상철 △콘텐츠사업본부 (팀장 부장급) △미디어커머스팀 김민경(심의실) (팀장 부국장급) △심의2팀장 겸 시청자정책센터장 김태호 △심의2팀 남남수 △경영지원본부 (부장급) △총무팀 손동열

◆중앙그룹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정호 △논설위원 신용호 △논설위원 김승현 △논설위원 겸 편집국 TF팀장 조강수 △콘텐츠제작에디터 겸 논설위원 주정안 △정치에디터 강민석 △국제외교안보에디터 김현기 △문화스포츠에디터 이우남 △탐사보도에디터 김정하 △사회 부에디터 김원배 △경제 부에디터 서경호 △정치팀장 고정애 △교육팀장 천인성(8월13자) △사회1팀장 이가영 △사회2팀장 문병주 △금융팀장 하현욱 △대중문화팀장 이지영 △디자인데스크 이주호 △JTBC ◇보도국 △취재담당 겸 정치에디터 전진배 △사회에디터 최현철 △주말에디터 김준술 △탐사기획부장 손운석 △사회정책부장 유상욱 △정치팀장 박성태 △국제외교안보팀장 남궁옥(7월26일 자) △동기이슈팀장 오대영 △법조팀장 오이석 △내셔널팀장 이정영 △주말취재팀장 김필규 △뉴스제작3부장 정성경 △보도제작국 △보도제작3부장 전용우 △디지털뉴스국 △H-TF팀장 김진일 △뉴스커넥트팀장 김일숙 △제작총괄 △제작2국 3CP 황교진

◆한류타임즈·스포츠서울 △부회장 김광현

세계응급의학회 ‘젊은 연구자상’

고대안산병원 송주현 교수 수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송주현 응급의학과 교수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8차 세계 응급의학회에서 최우수젊은 연구자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송 교수가 수상한 연구는 ‘새로운 패혈증-3 정의에 따라 진단된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 환자에서 Interleukin-6와 Pentraxin-3의 진단적 및 예후적 유용성’이다. 송 교수는 기존 바이오마커 연구의 대부분이 이전 패혈증 정의를 바탕으로 시행했다는 점에 주목, 새로운 패혈증 정의에 따라 진단된 패혈증환자들에게 최근 주목받는 바이오마커들의 임상적 가치를 평가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해외박사 7명에 장학증서 수여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지원한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로구 흥국생명빌딩에서 ‘제27기 해외박사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최종 선발된 7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미국 MIT(매사추세츠공과대) 재료공학, 칼텍대 의료공학, UC버클리대 기계공학 및 화학, 스탠포드대 통계학 및 조직행동학, 뉴욕대 스탠퍼드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입학 예정자로 기초순수학문 전공자 등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 있다. 일주재단은 선발자 1인당 총 12만 달러의 장학금을 4년간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후원한다. 김유진 기자 eugene@

부음

▲김병선 씨 별세, 김철기(자영업)·명기(대신증권잠실WM센터이사)·진기(STX엔진 용인사업장 전자통신연구소장) 씨 부친상 = 1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02-2258-5940

▲고임석 씨 별세, 이상범(변호사·전 서울민사고법 부장판사) 씨 부인상, 이재철(현대자동차 상무)·경희·정하 씨 모친상, 김인경 씨 시모상, 황병하(서울고법 부장판사) 씨 장모상 = 6월 30일, 강남성모병

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3일 오전 6시, 02-2258-5940

▲최필순 씨 별세, 강희석(건축업)·형석(수산업)·윤배(신비호디자인 대표) 씨 모친상 = 1일, 전남 안도대성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010-8261-8824

▲강필도 씨 별세, 강영학·용수(자영업)·진권(일간리더스경제신문 편집국장)·판권(계명대 사학과 교수) 씨 부친상 = 1일, 창녕 한성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 055-532-1532

추창근 칼럼



논설실장

‘재벌 저승사자’ 이미지가 깊이 각인된 그가, ‘경제를 아는 정책실장’으로서 받는 기대는 역설적이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는 동안 곤두박질한 성장, 수출, 투자, 고용 등 악화일로의 경제상황과, 기업 및 가계 등 경제주체의 절박한 위기감을 반영한다. 김상조의 정책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이기도 하다.

청와대 새 경제사령탑에 오른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통 경제학자다. 서울대의 학·석·박사 과정을 거쳐 한성대 교수로 오래 몸담았다. 금융이 주된 전공분야다. 그는 1999년부터 참여연대 활동으로 줄곧 재벌 개혁 이슈에 파고들어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얻었다. 문재인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다가 지금 주종 대사로 있는 장하성은 고려대 교수 출신 경영학자다. 그 뒤를 이은 김수현은 경제와 거리가 먼 도시공학과 지역계획학을 전공했다. 노무현 정부 때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경제에 대한 전문성의 깊이에 차이가 없지 않았지만, 이들을 학문의 좁은 프레임에 가두는 건 온당치 않다. 그런 잣대로 정책 역량의 우열을 판단할 수도 없다. 지금은 사회과학과 인문학,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학제적(學際的) 접근이 대세다. 그럼에도 전임 정책실장들은 늘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부정할 수 없다.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실험에 매달린 지난 2년여 동안 한국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민생은 더욱 피폐해진 데 대한 그들의 책임이 크다.

김 실장은 취임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이 경제학자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경제학자가 지켜야 할 자세도 언급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다. 경제학의 목표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증진해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경제제민(經世濟民)의 실현이다. 자원의 희소성과 가치를 분석하고, 개인과 집단의 합리적 선택을 경제사(經濟史)의 흐름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본령이다.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과 이해관계, 숫자로 나타나는 거시지표들을 주로 다룬다. 반면 경영학은 제한적인 비즈니스 개념이다. 기업 경영전략과 재무·회계, 인적 자원 및 생산관리, 마케팅 등의 실무가 연구 대상이다. 기업조직의 구조와 행동원리를 분석해 경영여건에 따른 최선의 해법과 리더의 의사결정을 도출한다.

김상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재벌 저승사자’ 이미지가 깊이 각인된 그가, ‘경제를 아는 정책실장’으로서 받는 기

대는 역설적이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는 동안 곤두박질한 성장, 수출, 투자, 고용 등 악화일로의 경제상황과, 기업 및 가계 등 경제주체의 절박한 위기감을 반영한다. 김상조의 정책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이기도 하다.

경제의 핵심은 합리적 자원배분이고,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시장의 호응에 달려 있다.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그런 점에서 실패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을 무너지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앴다. 경제의 토대인 시장을 무시하고 정치이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사실이 달라지면 생각을 바꾼다(When the facts change, I change my mind)”라는 케인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경제학자로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중시한 케인스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하이에크의 시장자유주의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

했다. 사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진보진영을 향해 “30년 전의 문제의식에 사로잡힌 경직성과 조급증 탓에 개혁이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수십년 재벌개혁을 신념으로 삼아온 그의 이런 발언이 생경(生硬)한 건 어쩔 수 없다. 편견의 본래 면모가 감춰진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시장의 의구심도 마찬가지다.

시장은 냉정하고 무섭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의도와 거꾸로 반응하면서 복수한다. 정부가 시장을 마음대로 이끌 수도 없다. 이 점은 김 실장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지금 경제현실과 정책의 한계를 제대로 보고, 시장중심의 성장노선으로 회귀하는 일보다 급한 건 없다. 전임자들처럼 소득주도성장의 맹목적 환상과 편향된 사고를 고집하면서 성공이 코앞에 있다고 주장하는 ‘희망고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경제는 성과의 팩트로 말해야 한다. 모든 정권의 성패는 경제로 가름된다.

kunny56@



원미숙의 참견

동의대 부산파워반도체랩 초빙교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물질의 성분과 조성을 결정하는 화학 분석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는 일을 분석화학이라 하며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분석화학자라고 한다. 기업에서 분석화학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화학종의 상대적인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한다. 강철 시료 중 탄소·니켈의 함량 분석, 환약 중 약품 성분의 분석, 아침식사에 포함된 비타민의 함량 분석 등을 위한 화학물질의 분석방법과 분석장치를 개발하는 일 등이다. 제품 생산 중 이상이 발생하면 제품의 불순물 또는 기타 성분 확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원료나 중간물질의 채취 및 시험, 제품의 질 및 배출물의 모니터링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석화학자의 역할이다.

건강한 삶, 수명 연장과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혈액·소변 등의 시료 분

석, 특수한 병에 걸린 환자의 혈액 및 소변 속 주요 성분 모니터링, 약품 대사를 분석, 환자 치료약의 순환 정도 확인을 임상 분석자가 행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식품 및 음료수 분석, 환경 오염 조사 등을 위한 공공 분석 및 범죄 수사, 식품, 주류, 금 제품 등을 포함하는 수출·입물 분석, 흙 속의 영양분 분석, 동식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 수준 조사 등 생활 속 분석화학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다.

2월까지 근무했던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분석 커뮤니케이터’ 역할이었다. 분석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임무는 기업과 연구자들이 직접 행하기 어려운 물질 분석에 대하여 그 방법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분석장비를 사용하여 시료에 대한 종합적인 특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여 제공해 주는 것이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듯이 대학 및 기업의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수행 중 문제가 생길 때 이 일을 해결해 주는 의사 역할을 수행하

는 셈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의 효율적인 연구 진행에 도움을 주었으며, 실제 기업의 제품 생산 공정상 문제점이나 생산품 수출 시 제기되는 하자 원인 규명을 위하여 제품의 성분이나 불순물 등을 분석하고, 문헌 조사 등을 통해 해석된 결과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직접 분석 및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석이 가능한 전문기관을 연결시켜 준다. 실제 중소기업의 경우 고가 장비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실감하기도 하였다.

분석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맡으면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례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일은 최근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분석 건이다. 필자는 화학 전공자로서 물질의 특성, 각 화학종의 확인 및 정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분석화학자로 살아왔으나, 실제 환경오염 물질과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리 예민하

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소금 중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일회용품의 사용 자체를 조금씩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활에 수반되는 다양한 물질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 결과 제공은 인간 삶의 질 제고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 강화와 업무 효율성 증대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성능 좋은 분석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석장비·기계 등을 조작·운전하는 사람, 즉 오퍼레이터보다는 분석 결과를 잘 해석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석전문가의 역할이 우선이다. 종합적인 화학 분석과 해석을 통하여 기업이나 수요자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기술과 연구·소통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분석 커뮤니케이터의 육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제재가 약 1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불법 등기이사 선임’ ‘갑질 경영’ 등의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의 위력은 대단했다. 진에어는 우선 운수권 분배 경쟁에서 배제됐다. 올해 초 인천~몽골 노선과 김해~싱가포르 노선 분배 경쟁에 참여하지 못했고, 5월 중국 노선 운수권 분배에서도 진에어의 자리는 없었다. 외형 성장도 불가능했다. 경쟁사들이 기단 확대를 통해 덩치를 불리는 동안 진에어의 성장은 정체됐다. 이달 기준 진에어의 보유 항공기 대수는 26대로 제재 전인 지난해 초와 같다.

기자수첩



안 경 무 산업부/noglasses@

진에어 제재, 마무리할 때

‘징벌의 공포’를 실감하고 있는 진에어는 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진에어에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진에어는 △이사회 구성 변경 통한 사외이사 권한 강화 △인

사제도 개선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 보완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이제는 국토부의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재를 통해 많은 것을 잃은 진에어가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은 작다. 실제로 변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시정 조치가 이

뤄진 상황에서 정부가 사기업의 손발을 묶어둘 이유는 없다. 기업 간 건강한 경쟁이 이뤄질 때 국민들도 양질의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복귀는 악수(惡手)로 보인다. 제재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국토부가 공교롭게 조 전무 복귀 이후 다시금 ‘신중 모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조 전무는 최근 경영에 복귀하면서 한진칼의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직책을 맡았다. 이는 그룹 전반의 마케팅에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조 전무가 계열사인 진에어 경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진에어 제재 근거로 ‘비정상적 경영행태’ 재발 방지를 든 바 있다.

☆ 헤밍웨이 명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미국 소설가.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쾌락 추구와 환멸을 그린 ‘해는 또다시 뜬다’,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애정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로 작가 지위를 굳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남긴 그는 20세기의 대표 작가.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99~1961.

☆ 고사성어 /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논어(論語) 선진편(先進篇)에 나온다. 자공(子貢)이 스승에게 “사(師:자장(子張)의 이름)와 상(商:자하(子夏)의 이름)은 어느 쪽이 어집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럼 사가 낫단 말씀입니까?” 하고 반문하자, 공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過猶不及]”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 시사상식/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을 말한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흔히 간과하고,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한 뒤에도 어떻게든 그 선택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믿으려 애쓴다.

☆ 우리말 유래 / 여보

부부간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 ‘여기 보시오’가 줄어든 말이다.

☆ 유머 / 이미 성숙한 아이

엄마가 외출하려고 속옷 차림으로 이것저것 옷을 입어보고 있을 때, 곁에서 보던 일곱 살 아들이 “히야, 올 엄마 죽인다!”라고 했다.

그 말에 아빠가 “쪼그만 게 말투가 그게 뭐야?”라며 야단쳤다. 이를 지켜보던 아홉 살 형이 동생에게 한 충고. “야 인마! 입자 있는 여자는 건드리는 게 아냐.”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주 52시간 근무제 실행속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지만, 제도시행 수개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직원들 간) 눈치 보거나 몰래 경쟁도 서서히 보이네요.”

최근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의 말이다. 이 임원에 따르면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들은 오후 5시 30분이면 모두 회사를 나선다. 초기에는 집으로 작행하거나 종종 술청 앞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극찬하며 동료들과 맥주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런데 누군가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어학과 회계 등 전문학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작지만 의미 있는 빈부의 격차가 나기 시작했다. 대학원에 다니려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학원을 다녀도 매월 수십만 원이 든다. 집 대출 갚기에도 빠듯한 직원들에게 이런 선택은 쉽지 않다.

이뿐 아니다. 회사에서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 기획안을 집에서, 또는 PC방에서 만들고 있는 동료도 등장했다. 업무를 마무리 짓지 못했더니 인상을 찌푸리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던 동료가 다음 날 말끔한 보고서를 가져와 상사에게 보고하는 모습에 일종의 ‘배신감’이 든다는 뒷말도 나온다. 중·고등학교때 어제 자느라 공부를 못했는데 다음 날 본 시험에서 100점 맞은 친구를 보며 가졌던 감정의 격차.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 대부분은 고위직 승진에 목숨을 걸고 있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

몇 년 전 미국 IBM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지인이 서울을 찾았다. 여름휴가차 가족들과 함께였다. 여름휴가 기간은 무려 3주. 본인의 연장 근무에 따른 대우

데스크칼럼

박성호
산업부장



와 연차 등을 붙여서 휴가를 썼다고 했다. 그리고도 아직 연차가 남아 겨울에도 2주 정도 가족여행을 계획 중이란다.

부러운 마음에 “휴가를 몇 주씩 써도 위(직장상사)에서 눈치를 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내심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대답만 해)’였다. “미국 기업문화는 한국처럼 구시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틀렸다. 그는 자신이 승진을 포기했기 때문에 장기 휴가를 쓰는 데 자유롭다고 했다.

“미국 대기업에서도 톱 자리에 가려고 마음먹은 직원들은 밤낮없이 일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휴가 기간을 짧게 쓰지. 회사에서 직원을 보는 잣대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을 거야. 그런 직원들이 인정을 받더라고. 단지 큰 차이점 하나는 난 해고 되더라도 다른 일자리 찾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거지. 한국 친구들은 회사 관두면 치킨집 등 자영업에 뛰어들던데.”

미국만 그런 것 같지도 않다. TV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복지 천국 덴마크에 한국식 포장마차를 차려 삶의 여유를 조망했다. 하지만 포장마차를 찾은 한 교포는 “주변에 승진하려는 직장 동료들은 정말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기도 했다.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선진국 노동자들의 모습은 대충 이렇다. 아침에

느긋하게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정시에 출근해 정시에 퇴근한다. 정원에서 아이들과 뛰어놀아주면 부엌에서는 부인이 음식을 만들며 따뜻한 미소로 이 모습을 쳐다본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같이 먹은 후, 침대에서 책을 읽어주며 아이들을 재운다. 마지막으로 침대맡 스탠드 전등을 꺼주며 달콤한 굿나잇 키스를 나눈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런 삶을 국민에게 선사하고 싶었을 거다. 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데, 주 52시간 근무제도 미국이나 유럽의 가족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일까? 어쨌든 노동유연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우리나라 상황은 염두에 없었던 듯싶다.

대기업 직원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미용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A 씨는 석 달 전부터 카카오톡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저녁 7시부터 시작해 새벽 1시까지 일하면 하루 8만 원 정도 수입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 주 4일 정도 대리운전을 하는데, 월평균 100만 원 정도를 벌여 아이들 교육비로 쓴다고 했다. 야간근무수당이 없어서 대리운전으로 이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부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400여만 명이라고 한다. 노동인구 3명 중 1명꼴이다. 제도 보완 없이 이렇게 주 52시간 근무제가 강행된다면 ‘누리는 자·못 누리는 자·피해자’로 분류되는 ‘신(新) 계급사회’가 등장할 수도 있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이 세상의 눈물의 양은 정해져 있지. 누군가 울기 시작하면 다른 누군가는 울음을 멈추겠지. 웃음도 마찬가지야.”

vicman1203@

에누리 없는 전통시장

곽도흔의 共有하기



정치경제부 차장

오이를 A가게에서는 3개에 2000원에 팔고, B가게에서는 5개를 1500원에 판다면 어디에서 사는 게 경제적인가? 초등학교생도 맞힐 수 있는 쉬운 문제다. 당연히 정답은 5개에 1500원인 B가게다.

얼마 전 아내와 집 근처 전통시장에 갔다. 아내는 평소 대형마트를 가지만, 지방에 가는 경우나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꼭 전통시장을 즐겨 찾는다. 시장에서 오이를 구매한 아내는 집에 오면서 시장에서 너무 비싸게 판다고 한마디했다. 평소 오이 가격을 잘 몰라 왜 그러는지 물었더니 대형마트와 비교해 너무 비싸게 판다는 얘기였다. 집에 와서 콩물에 얼음을 동동 띄워 시장에서 사 온 오이를 썰어 넣고 먹었는데 오이가 너무 썼다. 대형마트에서 사는 오이도 가끔 쓴맛이 나지만, 이 오이는 써도 너무 썼다. 겨우 다 먹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주말 드라

마를 갔다가 오는 길에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에 오이를 사러 갔다. 이곳에서는 오이를 5개에 1500원에 팔고 있었다. 집에 와서 콩물에 오이를 썰어 넣어 먹어보니 싱싱하고 맛이 좋았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나중에 연말 정산에서 40%나 공제를 해준다. 그만큼 정부에서 전통시장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관은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의 민원을 듣는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장들은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지역의 시장을 방문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진을 찍는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대형마트 영업까지 제한한다. 이렇게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전통이 있는 시장이고 지켜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시장은 많이 변했다. 반값계 인사하는 상인들이 없고 에누리 같은 인심이 없어진 곳도 적지 않다. 카드를 내밀면 인상을 쓰고 카드단말기가 없다고

말하는 곳도 있다. 앞선 사례처럼 쓴 오이를 파는 등 품질이 안 좋은 경우도 종종 있다. 품질 좋은 생선을 앞에 놓고 정작 달라고 하면 뒤에 있는 작고 신선하지 않은 생선을 주거나 3마리에 1만 원이라고 했다가 돈을 내밀면 갑자기 이진 2마리에 1만 원이라고 얼굴색을 바꾼다.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런 전통시장을 살려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전통시장 육성 예산은 5370억 원에 달한다. 중기부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복합 청년몰 조성이다.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해준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잘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청년몰로 만들어진 식당 몇 곳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지상파 TV 프로그램에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음식에 대한 기본기 부족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진정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고민할 때다.

soqood@

사설

日 경제보복 현실화, 脫일본 전략 급하다

우려했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현실화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제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세정용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가 그것이다. 일본 정부는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4일부터 규제에 들어간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가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일제(日帝)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과 관련,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먹이지 않자 보복에 나선 것이다. 국가 간 외교 갈등을 민간기업의 경제문제로 확대시킨 일본의 이 같은 대응은 정말 치졸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대 대상에서 빠지면, 한국은 수출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수입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업체들은 이들 소재 수요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다.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의 경우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70%를 점유하고 있다. 당장에는 재고물량으로 버티는

것이 가능하지만,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때가 문제다. 대체 공급선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적기공급이 안 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의 생산과 수출 차질에 따른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

한일 양국이 계속 충돌로 치닫는 상황이 더욱 우려스럽다.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고, 우리로부터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작년 흑자규모만 240억 달러를 넘는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그들로서도 큰 손해다. 그걸 감수하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통신키기 및 첨단소재의 수출통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외교문제를 걸어 한국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결국 외교적 해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별 대책도 없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기업의 피해와 경제충격이 커지기 전에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 일본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탈(脫)일본 전략이다. 한·일 교역이 시작된 이래 수십 년 우리는 늘 일본과의 교역에서 적자였다. 주요 산업의 기계장비, 부품 및 소재 등 중간재를 일본에 기대고 있는 탓이다. 이런 만성적 무역역조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핵심소재와 설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자금제구축 등이 어느 때보다 다급한 과제다.



고지식

늘 쓰는 말 가운데 ‘도대체’, ‘어영부영’ 등처럼 얼핏 보기에는 순우리말인 것 같지만 실은 한자말인 단어가 많다. 그런가 하면 영락없는 한자말인 것 같은데 국어사전에는 순우리말로 분류된 단어도 있다. ‘고지식’이 바로 그런 예이다. 고지식하다는 것은 ‘성질이 외골으로 곧아서 융통성이 없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굳을 고(固), 알 지(知), 알 식(識)을 쓰는 ‘固知識’으로 알고 있다. 고지식을 ‘굳은 지식’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고착되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곧 고지식한 것이므로 ‘固知識’이라고 쓰는 것도 터무니없는 발상만은 아닌 성싶다. 그런가 하면, ‘높을 고(高)’를 써서 ‘高知識’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높은 지식’이라는 뜻인데 자기가 가진 지식을 최고로 여겨 제 지식에 맞춰서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어허! 대단히 높은 지식이군”이라는 의미로 던지는 말이 곧 ‘高知識’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固知識’일 수도 있고, ‘高知識’일 법도 한 단어인데 ‘고지식’이 한자말이 아니라 순우리말이라고 하니 다소 의아한 면이 있다. 그렇게 순우리말로 분류한 국어사전이 오히려 고지식해 보인다.

고지식한 사람들이 많다면 사회적인 소통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박정희 독재시대에는 북한의 공산당 사람들을 마치 머리에 뿔이라도 난 것처럼 험하게 형상화하여 각인시키는 교육을 했다. 매일같이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는 반공교육을 했다. 세월이 흘러 구소련의 무너진 공산당도 보았고, 우리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만나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논의하는 장면을 보고서도 여전히 그 옛날 박정희 독재시대에 강요했던 반공교육의 이념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고지식한 사람들이다. 固知識도, 안하무인의 高知識도 다 털어내야 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신혼에 딱 맞는 핑크빛 키친,
핑크빛 비스포크”



BESPOKE
1도어x3

Cotta White1 +
Glam Pink2

가구를 맞추듯
가전을 맞추다

BESPOKE

